

INVITATION TO THE ARTS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7 vol.310 10



표지
바이올리니스트 미도리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들음의 미학'을 깨닫게 된 이탈리아 국제콩쿠르 심사기

세계의 공연장
바이에른州的 주도 뮌헨의 공연장 이야기



| R. Strauss' Ein Heldenleben |

2017 9th

BUSAN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The Classic 아시아의 창(窓) 부산

PROGRAM

이순봉 | 2017 BWPO아시아의 창 시곡 '自由樂' -45:00
Seo-Bong Ito | BWPO Windows of Asia' Overture 'Um Sok Rak' - 45:00

시벨리우스 |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47
J. Sibelius | Violin Concerto in d minor, Op.47

슈트라우스 | 교향시 '영웅의 생애' 작품 40
R. Strauss | 'Ein Heldenleben' Symphonische Dichtung, Op.40



바이올린 김재원
Violin Ja-won Kim



예술감독 오충근
Artistic Director Choong-Kaun Oh

2017. 10. 30 | 월 | 7:30pm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Monday 7:30pm | October 30th 2017 | Busan Cultural Center, Grand Theater

• 주 최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집행위원회 • 후 원 부산광역시 문화재단

• 협 찬

• 문 의 051-850-9568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집행위원회 www.bwpo.co.kr

• 입장권 전석 무료(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 • 초대권신청 홈페이지 www.knn.co.kr

•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은 부산광역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BEETHOVEN SYMPHONY CYCLE

CONCERT **II**

베토벤 교향곡 제2번 Beethoven **Symphony No.2**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Rachmaninov **Piano Concerto No.2**

지휘 **금난새** Gum Nanse **협연** **유영욱** Ian Yungwook Yoo
연주 Busan Festival Orchestra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7. **11. 19.** Sun. 19:00

티켓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예약 및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001-0000 www.bcco.or.kr
인터파크 1544-1555 www.interpark.com

www.bof.or.kr

아시아
No.1
한류축제

BOF

2017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2017.
10.22.(일) -
10.31.(화)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JAYJUN

SBS Plus KNN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제4회 해운대재즈페스티벌

재즈

Haeundae Jazz Festival

2017.10.31 (화) - 11.4 (토)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4일간의 특별한 재즈 와인에 빠지다”



“이한철 밴드”



“이정식 퀸텟”



“SHIHO KANAZAWA DUO”
(Japan)



“전제덕 밴드”

10.31 (화) PM8
부산 재즈루키밴드
컨테스트 결선
(무료)

11.1 (수) PM8 - 재즈 와인에 빠지다 105th “이한철 밴드”
11.2 (목) PM8 - 재즈 와인에 빠지다 106th “이정식 퀸텟”
11.3 (금) PM8 - 재즈 와인에 빠지다 107th “SHIHO KANAZAWA DUO”
11.4 (토) PM8 - 재즈 와인에 빠지다 108th “전제덕 밴드”

■ 주최 : Haeundae 해운대문화회관
HAEUNDAE CULTURAL CENTER

■ 주관 : 부산대교양문화재단

■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 Association

Haeundae 해운대교양문화재단

SPECIAL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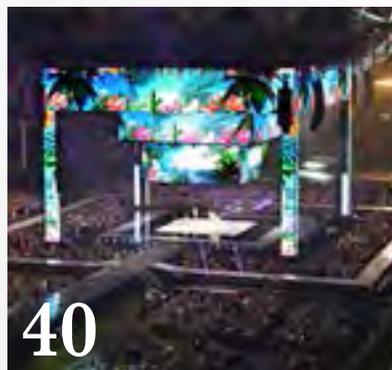


08



20

CULTURE +
세계의 공연장
바이에른주의
주도 뮌헨의 공연장 이야기



40

VIEW +
문화가 화제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2017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62

NEWS +
부산문화회관 소식

contents

SPECIAL +

- 08 **커버스토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

CULTURE +

- 10 **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회관 10월 공연 캘린더**
- 14 **특집 (재)부산문화회관 통합으로 새롭게 비상하는 부산시민회관**
- 16 **반갑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임 상임지휘자 최수열**
- 18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듣음의 미학'을 깨닫게 된 이탈리아 국제콩쿠르 심사기
- 20 **세계의 공연장**
바이에른주의 주도 뮌헨의 공연장 이야기
- 24 **축제 속으로**
제14회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 26 **테마가 있는 여행**
합천 정양뉴생명길 탐방

VIEW +

- 32 **프리뷰**
- 40 **문화가 화제**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 2017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 44 **리뷰**
- 46 **프로그램 가이드**

NEWS +

- 60 **새로 나온 음반 / 새로 나온 책**
- 62 **부산문화회관 소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2017년 10월호 통권 310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박인건 편집인 조요한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7년 9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

지난 1956년 창단 후 올해로 61주년을 맞는 KBS교향악단은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그 동안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등 세계 정상급 지휘자들을 거치며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난 2012년 9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KBS교향악단은 그동안 700회가 넘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기획연주회, 초청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과 교향곡에서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청중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UN 창설 50주년 및 광복 50주년 기념연주회를 비롯한 해외 초청공연 및 국가적 행사에 참여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00년과 2002년에는 남북관계의 회복과 평화를 위한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대한민국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세계적인 지휘자 요엘 레비의 취임 이후 섬세하면서도 역동적인 연주로 더욱 깊이 있는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는 KBS교향악단은 지난해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열린 브루크너 페스티벌 개막 연주에 초청받아 그 기량을 한껏 선보였으며, 2017년 올해는 클래식 문화 보급을 위해 여수상공회의소와 공동 주최한 제1회 여수음악제(9월 1일~3일)를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KBS교향악단 음악감독이자 상임지휘자인 요엘 레비는 그동안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이끈 무대와 교향곡,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레퍼토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왔다. 1978년 브장송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한 후, 6년간 로린 마젤의 보조 겸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로 활동을 시작한 요엘 레비는 이후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2005년에는 일 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로도 임명된 그는 2012년까지 일 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를 이끌며 프랑스는 물론 스페인, 영국 그리고 동유럽 등지까지 연주투어를 진행하며 언론으로부터 유럽에서 가장 고무적인 오케스트라 중 하나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이스라엘인으로는 최초로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객원지휘자를 맡아 미국, 멕시코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대한민국 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이 10월 14일
 부산을 찾는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일
 본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로 명성을 떨쳤던 미도리
 가 오랜만에 협연자로 무
 대에 설 예정이라 부산을
 악애호가들의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비올리니스트 미도리

가 하면 2008년에는 이스라엘 건국 60주년 기념 특별연주회의 지휘봉을 잡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요엘 레비는 지난 1997년부터 KBS교향악단과 수차례 호흡을 맞추어 오다 지난 2014년 KBS교향악단 제8대 음악감독으로 취임하면서 세련되고 섬세한 지휘와 탁월한 리더십으로 KBS교향악단을 이끌며 국내외 클래식 애호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작품 47'로 관객과 만나는 바이올리니스트 미도리는 '바이올린 신동'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연주자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4세 때 바이올린을 시작, 불과 11살의 나이로 주빈 메타에게 발탁되어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통해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4살이던 1986년 여름, 탕글우드 음악제에서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보스턴교향악단과의 협연무대에 섰던 미도리는 바이올린의 현이 두 번이나 끊어지는 돌발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오케스트라 주자의 악기를 빌려 연주를 무사히 마치면서 관객들로부터 기립박수와 함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의 탄생을 알렸다. 연주회 후 미도리는 '14세의 소녀가 3대의 바이올린으로 탕글우드를 정복하다'라는 타이틀로 뉴욕타임즈의 1면을 장식했으며 뉴욕포스트지로부터는 '미도리는 바이올린으로 세계를 얻었다'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

이후 클라우디오 아바도,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 다니엘 바렌보임, 레너드 번스타인, 콜린 데이비스,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마리스 안손스, 요요마, 쿠르트 마주어, 주빈 메타, 아이작 스톤, 그리고 핀커스 주커만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과의 협연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거처온 미도리는 1988년 17세의 어린 나이에 안네 소피 무터, 정경화, 빅토리아 물로바, 손넨버그 등과 함께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5대 여자 바이올리니스트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또한

1994년 영국에서 발행되는 권위 있는 레코드전문지 클래식 CD 1월호 특집에서 막심 벤게로프, 사라 장, 김지연과 함께 21세기를 이끌어 갈 4명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뽑혔으며 그 해 12월, 타임지가 선정한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100명의 주역'으로 클래식 음악가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그 명성을 재확인했다. 1992년 '미도리와 친구들(Midori & Friends)'이라는 재단을 시작으로 'Music Sharing', 'Partners in Performance'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 어린이들의 음악교육에 힘써 온 미도리는 현재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SC) 교수, UN 평화대사로 활동하며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꾸준히 무대에 서고 있다.

이번 무대의 첫 곡은 힌데미트의 '폰 베버 주제에 의한 교향적 변용'으로, 독일의 작곡가 힌데미트가 선배 작곡가인 베버의 꾸밈없고 간결한 주제를 빌려 그만의 재치 있고 화려한 음악으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원래는 무용가이자 안무가인 레오나드 마신을 위한 발레음악으로 기획됐으나 관현악곡으로 유명하며, 지난 1944년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초연무대를 가진 후 그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미도리의 협연으로 들려주는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작품 47'은 북유럽의 밤을 빛내는 신비로운 오로라처럼 영롱한 음악으로, 북유럽 음악의 대명사이자 바이올린 협주곡의 기념비적인 명곡으로 사랑받는 작품이다. 이번 연주회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곡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 슈트라우스가 남긴 최후의 교향시로, 작품 속에서 '영웅'은 슈트라우스 자신을 가리키는데 화려한 음향과 현란하고 색채적인 표현 속에서 예술가의 고난과 영광의 세월이 드라마틱하게 그려지고 있다.

10

2017 OCT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이 공연·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참 챔버홀 **아** 야외광장

사 사랑채극장

SUN	MON	TUE
1	2	3
8	9	10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대 전문예술법인 (사)이지무소페라단 제35회 정기공연_Opera in Concert '리골레토' 19:30 4만원·3만원·2만원 (사)이지무소페라단(010-8520-4649)</p> <p>참 김민정 피아노 독주회 19:30 전석 2만원/김민정(070-8261-0307)</p>
15	16	17
<p>대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 17:00 무료/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010-4555-1470)</p> <p>참 김주영 귀국 바이올린 리사이틀 19:30 2만원·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14:0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대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제30회 부산합창제' 19:30 무료 부산시립합창단(607-3115~6)</p> <p>참 경성체임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경성체임버오케스트라(010-7148-3353)</p>	<p>대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제30회 부산합창제' 19:30 무료 부산시립합창단(607-3115~6)</p> <p>참 박유미 피아노 리사이틀 19:30 2만원·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22	23	24
<p>대 제55회 부산무용예술제 17:00 전석 1만원 부산무용협회(632-5116)</p> <p>참 제10회 테너 주종식, 바리톤 최성규 듀오콘서트 18:00 전석 2만원 우리아트(920-9545)</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14:0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참 2017 바리톤 하병욱 독창회 19:30 전석 2만원 우리아트(950-6564)</p>	<p>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아시아 민족음악의 밤' 19:30 전석 1만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p> <p>참 김민정 플루트 독주회 19:30 전석 1만원/김민정(010-3918-8442)</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29	30	31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14:0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대 2017 제9회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The Classic-아시아의 창(窓) 부산' 19:30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850-9566, 9568)</p> <p>참 브람스 서거 120주년 기념음악회 '브람스의 눈물' 19:30 2만원·1만원 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대 피아니스트 백혜선 리사이틀 19:30 6만원·4만원·3만원 부산아트메니지먼트(740-5833)</p> <p>참 김혜진 바이올린 리사이틀 19:30 전석 1만원 김혜진(010-4568-3370)</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WED	THU	FRI	SAT
4	5	6	7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11	12	13	14
<p>대 전문예술법인 (사)이지무스오페라단 제35회 정기공연_Opera in Concert '리골레토' 19:30 4만원·3만원·2만원 (사)이지무스오페라단(010-8520-4649)</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대 정희정의 소리로 보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19:30 3만원·2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캠 제20회 오로록도 평화음악회 19:30 초대/강학운(010-9287-6350)</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 17:00 7만원·5만원·3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캠 서예나 귀국 첼로 독주회 19:00 초대/the Yoon(010-9025-2012)</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14:0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18	19	20	21
<p>대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제30회 부산합창제' 19:30 무료 부산시립합창단(607-3115~6)</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I' 19:00 4만원·3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캠 BTN 불교TV 남성중창단 정기연주회 19:30 전석 2만원/BTN 남성중창단(010-2070-7727)</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캠 베이스 바리톤 박순기 귀국독창회 19:30 전석 2만원 박순기(010-9204-5854)</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캠 강수이 귀국 비올라 리사이틀 19:30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14:0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25	26	27	28
<p>대 부산시립소년소녀 합창단 독도의 날 기념 '독도지킴이 서경덕 교수와 함께하는 독도 네 번째 이야기' 19:30 전석 2천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0)</p> <p>캠 김정화 피아노 리사이틀 19:30 2만원·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윤범과 함께 하는 마티네 웰빙 콘서트 시즌 2' 11:00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대 제28회 이견음악회 '모스크바 스투덴스키 수도원 합창단 내한공연' 20:00 무료(온라인 통해 입장권 신청가능) (주)이견창호(032-760-0898)</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대 소프라노 김성은 초청독창회 19:30 5만원·3만원·2만원 부산문화(1600-1803)</p> <p>캠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II '비엔나 챔버 플레이어즈' 19:30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정기연주회 17:00 무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510-1747)</p> <p>캠 제2회 UM 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7:00 전석 2만원 예술기획(010-4909-7444)</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14:0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11/1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III '일본 텔레만 실내악단' 19:30 4만원·3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캠 소노레 플루트 앙상블 30주년 기념음악회 19:30 소노레 플루트 앙상블(010-4120-3269)</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전시실 부산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졸업전시회 9월 30일(토)-10월 2일(월) 문의 : 부산대학교 디자인과 510-1736</p> <p>제15회 한글서예한마당 10월 7일(토)-10월 15일(일) 문의 : (사)한국서체연구원 이사장 허경무 010-3886-1231</p>	<p>제55회 부산예술제 '2017 부산미술대작전 및 해외자매도시 교류전' 10월 20일(금)-10월 27일(금) 문의 : 부산미술협회 632-240</p> <p>영산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졸업전시회-부산공예명장회 10월 28일(토)-10월 31일(화) 문의 : 최유진 010-4366-9094</p>

10

2017 OCT
부산시민회관 공연일정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공연·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 대 대극장
- 소 소극장
- 야 야외광장

1	소	◆어린이 뮤지컬 '슈퍼왕스 시즌2' 11:00, 14:00, 16:00 전석 5만원/극단 기찬이룸(626-1722)
7	대	◆장윤정&조항주 부산콘서트 15:00, 19:00 11만원·9만9천원/극단 화랑(1644-5564)
8	대	베트남 뮤직페스티벌 14:00 5만원·3만원·2만원/제이디모바일(010-5899-7669)
	소	제3회 동백전국가요제 15:00 무료/부산가요작가협회(528-4848)
11	대	제7회 소문실버가요축제 11:00 무료/소문노인복지(256-2301)
	야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통합기념공연 시민뜨락축제 12:00 무료/부산시민회관(630-5200)
12	대	2017년 민족통일부산광역시대회 14:00 무료/민족통일부산광역시협의회(517-5557)
	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0:30, 11:40 전석 5천원/예능교육(051-518-787)
	야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통합기념공연 시민뜨락축제 12:00 무료/부산시민회관(630-5200)
13	소	뮤지컬 '길' 20:00 무료/위컴스(070-8273-9206)
	야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통합기념공연 시민뜨락축제 12:00 무료/부산시민회관(630-5200)
14	대	어린이 가족뮤지컬 '옥토넷' 11:00, 14:00, 16:00 2만6천원·2만1천원/초록공간 엔터테인먼트(1566-9786)
	소	뮤지컬 '길' 16:00, 19:00 무료/위컴스(070-8273-9206)
	야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통합기념공연 시민뜨락축제 12:00, 13:00 무료/부산시민회관(630-5200)
15	대	어린이 가족뮤지컬 '옥토넷' 11:00, 14:00 5만원·4만원/초록공간 엔터테인먼트(1566-9786)
	소	뮤지컬 '길' 16:00, 19:00 무료/위컴스(070-8273-9206)
16	대	제35회 부산관악축제 19:00 1만원·5천원/한국관악협회 부산지회(804-8844)
	소	제39회 부산실버합창단 정기발표회 13:30 무료/부산광역시 실버예술단(635-5734)
17	대	제8회 유아&교사 합창대회 14:00 초대/부산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010-2560-0027)
	소	뮤지컬 '로봇 똥' 10:40 전석 1천원/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936-7011)
18	대	제11회 문화예술큰잔치 13:30 한국문화원 부산광역시연합회(554-0159)
	소	제8회 돌봄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페스티벌 19:00 초대/(주)문화공(754-7474)
20	대	제55회 부산예술제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00 무료/부산음악협회(634-1295)
21	대	부산CBS 창립 58주년 기념음악회 19:00 초대/부산CBS(636-0050)
	소	제 55회 부산예술제 '크림빵을 먹고 싶었던 영희' 16:00, 19:00 전석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22	대	제55회 부산예술제 실버가요제 14:00 무료/부산연예협회(646-7343)
	소	제 55회 부산예술제 '크림빵을 먹고 싶었던 영희' 16:00 전석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23	대	평양예술단 초청공연 제2회 통일가요제 13:30 무료/남북한통일문제협의회(610-0636)
24	대	제8회 부산실버종합예술제 13:00 무료/(사)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861-0119)
25	대	문화가 있는 날 영화 '국제시장' 14:00 무료/부산시민회관(630-5200)
	소	제55회 부산예술제 '검정고무신' 11:00, 15:00 전석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26	대	제17회 한마음경로대잔치 10:00 초대/부산광역시 노인복지협회(502-6661)
	대	부산아시아콘서트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5천원/부산아시아콘서트오케스트라(010-9538-6664)
	소	제55회 부산예술제 '검정고무신' 11:00, 15:00 전석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27	소	제55회 부산예술제 '검정고무신' 11:00, 15:00 전석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28	대	제55회 부산예술제 '전통음악 교류한마당' 16:00 전석 1만원/(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644-5211)
	소	제55회 부산예술제 '검정고무신' 16:00, 19:00 전석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29	대	2017년 제16회 부산광역시장애인 보디빌딩 선수권대회 10:00 전석 5천원/부산광역시 보디빌딩협회(500-7966)
	소	제55회 부산예술제 '검정고무신' 16:00, 19:00 전석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30	대	제36회 부산노인대학연합예술제 11:00 무료/부산노인대학협의회(898-3600)
	소	어린이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10:15, 11:15 단체 5천원/예술공장승승(513-3054)
31	소	어린이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10:15, 11:15 단체 5천원/예술공장승승(513-3054)

전시일정

2017년 제15회 한글서예한마당

부산시민회관 1, 2층 전시실 10월 7일(토)~10월 13일(금)
문의 : 부산광역시(888-5037)

아름다운 규방공예전

부산시민회관 1층 전시실 10월 15일(일)~10월 18일(수)
문의 : 샘지사랑 규방공예연구소(010-4581-2907)

제55회 부산예술제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전

부산시민회관 1, 2층 전시실 10월 20일(금)~10월 24일(화)
문의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631-4111)

제55회 부산예술제 '꽃 창공을 날다'

부산시민회관 1, 2층 전시실 10월 26일(목)~10월 29일(일)
문의 : 한국예총부산광역시연합회(631-1377)

제26회 T.O.P 전시회

부산시민회관 2층 전시실 10월 15일(일)~10월 18일(수)
문의 : T.O.P 그룹(010-5548-1764)

부산여류사진가회 회원전

부산시민회관 2층 전시실 10월 31일(화)~11월 4일(토)
문의 : 부산여류사진가회(010-2387-9939)

시민 뜨거운 축제

시민과 함께하는
나홀간의 가을 로망스



2017.
10.11(수)~
10.14(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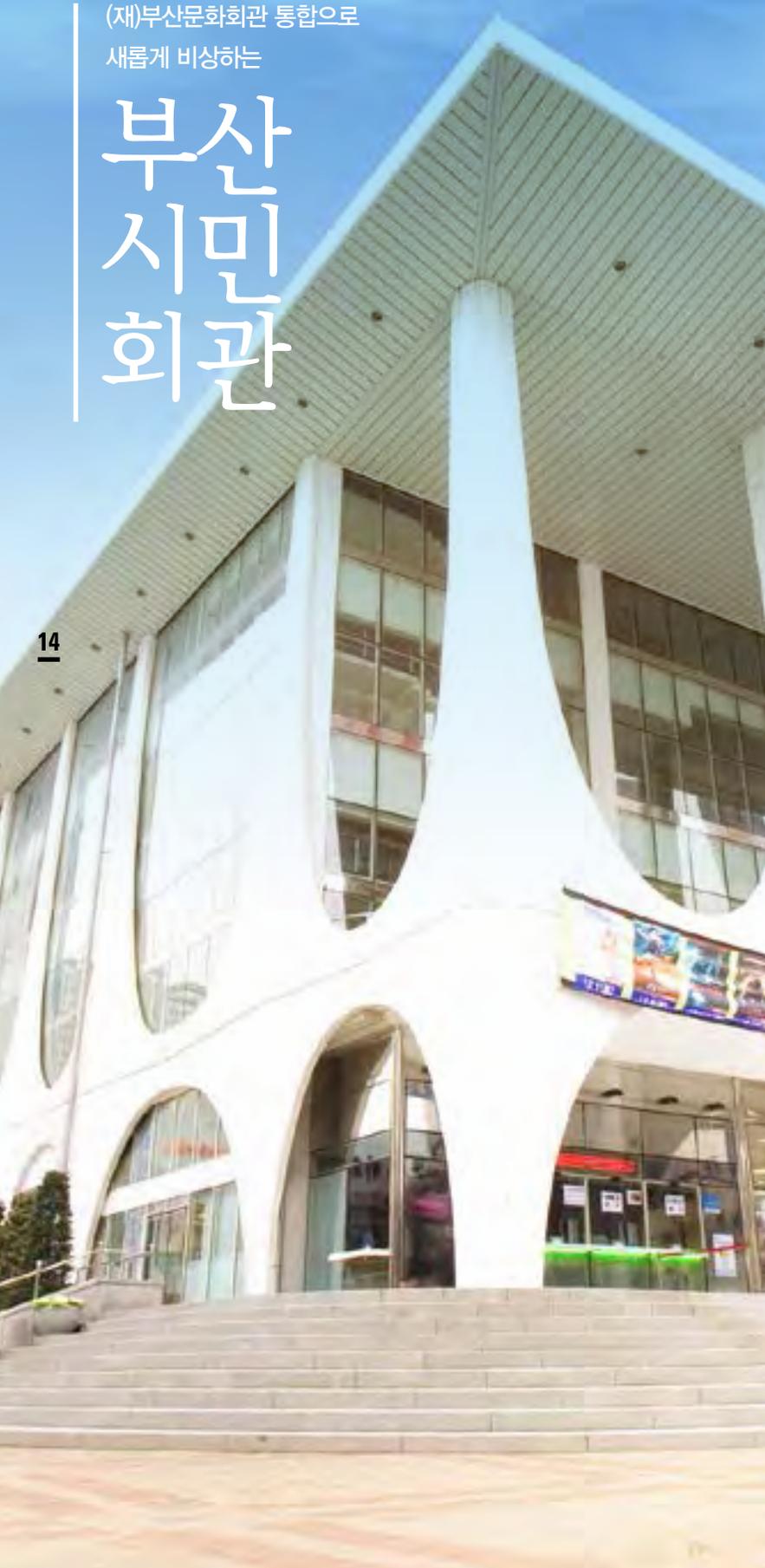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장소 : 부산시민회관 광장

	• 무지카비바, 후브라스콰이어	10.11(수) 12:00~13:00
야외공연	• 나눴플루트 소사이어티, 김옥련 발레단	10.12(목) 12:00~13:00
	• 강혜성트리오 with 혜원, 버닝소다	10.13(금) 12:00~13:00
	• 문센트,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10.14(토) 13:00, 15:00
부대행사	• 아트마켓	10.14(토) 12:00~16:00
	• 버블매직체험	

(재)부산문화회관 통합으로
새롭게 비상하는

부산 시민회관



1973년 개관과 함께 45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부산시민과 함께해 온 부산시민회관이 10월 1일 (재)부산문화회관과 통합·운영되면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한다

1973



오랜 세월 시민과 함께해 온 부산 문화의 요람

지난 1988년 부산문화회관이 개관하기까지 부산의 유일한 문화 예술의 요람 역할을 담당해 온 부산시민회관은 개관 이후 부산지역 예술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다양한 예술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공공교육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등 부산시민들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산하 예술단체와 부산시립예술단이 이곳 부산시민회관에 상주해 있다가 지난 1988년과 2011년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예술회관이 개관하면서 부산시립예술단은 부산문화회관으로,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부산예술회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부산시민회관은 마땅한 문화시설이 없던 1970, 80년대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오늘날 부산이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어 왔다. 부산시민회관은 개관 후 부산광역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해오다 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해오고 있다.



2009

2017

예술가와 시민이 소통하는 만남의 공간

부산시민회관은 현재 1,600여 석의 대극장을 비롯해 400여 석의 소극장과 한솔갤러리, 그리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연습실까지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오랜 역사만큼 한때 노후화된 시설로 불편을 겪기도 했으나 지난 2009년 대극장 객석 및 전 시설 전면 개·보수를 거쳐 2012년 소극장 객석 및 로비, 연습실, 세미나실, 분장실 리모델링, 2013년 대극장 로비 및 소극장 분장실 리모델링 등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을 펼치면서 관람객들을 위한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해왔다.

지난 2009년 개관 후 36년 만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새롭게 문을 연 대극장은 1,606석(1층 1,062석, 2층 544석, 장애인석 18석 별도) 규모의 객석을 갖춘 프로시니엄 무대로 클래식에서부터 뮤지컬, 무용, 콘서트 등 모든 장르의 공연을 소화할 수 있는 공연장이다. 창작 실험예술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극장은 객석 407석(1층 97석, 2층 310석) 규모로 독주회, 연극, 어린이뮤지컬 등 소규모의 종합공연뿐 아니라 매년 부산연극제, 부산국제연극제 등 지역의 주요 행사가 열리고 있다.

‘큰 마을’을 뜻하는 ‘한솔갤러리’는 소극장 1, 2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회화, 조각, 서예, 사진, 목화, 공예, 수석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밖에 2009년 리모델링 당시 전시실 입구에 비품창고로 버려져 있던 공간을 한솔아트샵으로 탈바꿈시켜, 전문 미술인들의 창작 예술작품에서 아트 문구까지 다양한 작품을 판매하면서 예술가와 시민이 소통하는 친숙한 만남의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편히 찾을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

10월 1일,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로 새롭게 출발하는 부산시민회관은 시민회관으로서의 공공적인 성격을 강화한 기획공연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간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리적 여건을 활용, 회관 앞 야외광장을 활성화시켜 주 1~2차례 시민들을 위한 낮 공연과 주말 아트마켓을 통해 시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문화휴식 공간으로 운영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상주단체를 운영하면서 마을음악회, 직장음악회, 시장공연 등 시민들 속으로 직접 찾아가 만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정기회원제, 공연관람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

부산시민회관이 그동안 운영해 온 ‘문화사랑 나눔회원제’는 시민들이 공연 관람 시 보다 저렴하면서도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 할인 및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왔다. 관람 공연의 할인 매수에 따라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기획공연 및 대관공연, 전시뿐 아니라 한솔카페, 한솔아트샵 작품 구매 시에도 할인혜택을 제공해 왔다. ‘문화사랑 나눔회원제’는 이번 (재)부산문화회관과의 통합에 따라 (재)부산문화회관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정기회원제도와 통합, 운영된다.

10월 1일부터 가입하는 회원들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제도에 따라 VIP회원, 스페셜회원, 예술단회원에 가입할 수 있으며, 혜택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통합에 따라 공연 관람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면서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제는 앞으로 시민들의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기념 축하의 장 ‘시민뜨락축제’

부산시민회관에서는 10월 11일부터 (재)부산문화회관과의 통합을 기념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특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10월 14일까지 나흘간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시민뜨락축제’는 부산시민회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축제의 장으로, 무지카비바, 후브라스콰이어(11일), 김육련발레단, 나눔플루트앙상블(12일), 강혜정 트리오&재즈보컬리스트 해원, 버닝소다(13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문센트(14일) 등이 출연, 클래식에서부터 무용, 대중음악 등 다채로운 축제의 향연을 펼친다.

Conductor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임 상임지휘자

최수열

지난 1년 8개월간 공석
이었던 부산시립교향악단
제11대 상임지휘자에
차세대 지휘자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젊은 지휘자
최수열 씨가 선임됐다.

지난 2014년 불과 서른다섯의 나이로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에 올라 '포스트 정명훈'을 대표하는 신예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최수열 지휘자는 30대 지휘자의 젊은 패기와 탁월한 실력으로 한동안 정체되어 있던 부산시립교향악단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두 차례 만남을 통해 단원들의 자부심과 열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언젠가는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마침내 그 바람이 이루어져 저로서도 영광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익히고 연습한 모든 역량을 부산시립교향악단을 통해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반세기를 훌쩍 넘긴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지켜보며 역시 전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다는 최수열 지휘자는 앞으로 그 전통을 새롭게 세워나갈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호흡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사퇴한 지휘자 정명훈을 대신해 서울시립교향악단과의 데뷔무대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음악계에 큰 화제를 모았던 최수열 지휘자는 특히 창의적인 프로그래밍 감각과 현대음악에 대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지휘자로 평가받으며, 포브스코리아 '2030 파워리더 30인', 월간객석 '차세대를 이끌 젊은 예술가 10인'에 지휘자로서는 최초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지휘과 예술사, 예술전문사 과정을 마친 후 도독, 독일학술교류처(DAAD) 예술분야 장학생으로 드레스덴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최고점수로 졸업한 그는 2010년 동양인 최초로 독일의 세계적인 현대음악단체인 앙상블 모데른 아카데미(EMA)의 지휘자로 선발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EMA 활동을 통해 지휘자로서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다는 그는 이듬해 서울시립교향악단 현대음악 시리즈 '아르스노바'의 어시스트 지휘자로 참여하면서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차세대 지휘자 발굴을 위한 정명훈의 지휘 마스터클래스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발탁된 최수열 지휘자는 지금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한 리허설론 콘서트, 창고음악회, 음악극장 등 새로운 컨셉의 콘서트를 개발, 성공시키는가 하면 그가 2013년부터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성남아트센터 마티네콘서트를 통해 기존의 아침음악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도전적인 레퍼토리나 내실 있는 무게감으로 각종 언론은 물론 청중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부산에 남아 있는 역사적인 근대건축물이나 공장지대, 부두 등 부산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에서 부산시민과 만나고 싶습니다.”

성남아트센터의 마티네음악회를 통해 근·현대음악과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 교향곡 전곡연주회를 가지면서 오전음악회는 가벼워야 한다는

발상을 과감히 뒤집었던 그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험적이면서도 신선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최수열 지휘자는 우리 시대 탁월한 작곡가로 평가받는 작곡가 진은숙 씨로부터 '21세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젊은 지휘자'라는 호평을 받을 만큼 현대음악의 스페셜리스트로 꼽힌다. 그 중에서도 최근 몇 년간 그의 음악적 화두는 윤이상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관현악곡으로, 많은 무대를 통해 이 두 작곡가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오고 있다.

“모차르트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모차르트의 음악이 그 시대의 현대음악이었듯 지금의 현대음악 중 옥석들은 훗날 고전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시대의 음악을 기억하고 연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아직은 관객들이 느낄 현대음악의 생소함을 알기에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다. 최수열 지휘자가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첫 번째 진행할 시리즈 무대는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무대로, 9월 29일 취임연주회를 시작으로 2018-2019 시즌을 통해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을 소개한다. 슈트라우스는 그에게 있어 가장 잘 맞는 레퍼토리아자 스스로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곡이라 생각한다는 그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슈트라우스 하면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떠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9월 29일 취임연주회를 앞두고 정작 자신의 취임연주회가 아닌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2회 정기연주회로 기억해주길 바란다는 지휘자 최수열 씨, “지휘자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오랜 전통 속에 잠시 머물며 그 전통을 이어주는 가교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훗날 부산시민들이 취임연주회보다는 자신의 퇴임연주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지휘 인생의 한 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단계로 한 걸음 올라선 최수열 지휘자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빛어낼 멋진 앙상블에 부산시민들의 기대가 모아진다.



‘들음의 미학’을 깨닫게 된 이탈리아 국제콩쿠르 심사기

필자는 지난 9월 7일부터 이탈리아 산 레모 부근 안도라시에서 열린 제4회 이탈리아 토스카 국제콩쿠르(The Opera Students Contest Award, TOSCA)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앞으로 미래의 오페라계를 이끌어 갈 인재들을 뽑기 위해 그곳을 다녀왔다.

‘이탈리아 토스카 국제콩쿠르’는 2년제 이상의 음악 관련 학위를 받은 음악도들이 참가하는 콩쿠르로, 이탈리아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대학 오페라 과정의 마지막 해를 보내는 학생들과 성악가들이 대거 참가하는 대회이다.

특히 전문적인 오페라 지도자로부터 3년 이상 성악 레슨을 받았다면 졸업생이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어 참가자들의 폭이 넓다. 2년 전인 2015년 제31회 비오티-발세시아 콩쿠르 성악부문 심사에 이어 성악의 본고장에서 다시 불러준 과거에 개인의 영광과 기쁨도 컸지만 무엇보다 내가 젊은 인재들에게 무대의 기회를 어떻게 잘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국제 성악콩쿠르는 10명이 참가하든지 100명이 나오든지 결국 아주 잘하는 참가자들은 5명 내외이다. 이번 콩쿠르에 참가한 수많은 참가자 중 엄선된 16명을 2차 세미 파이널리스트로 올리고, 이 중에서 11명을 결선 입상 진출자로 올리면서 결국 5명이 순위를 받게 되었다. 콩쿠르 심사를 하게 되면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해도 지루하거나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 그런데 2년 전이나 올해 심사를 하면서 내가 결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된, 잊을 수 없는 계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약 15년 전 내가 유학생이던 시절, 이탈리아 베르디의 고향 부세토에서 열린 베르디 국제성악콩쿠르에서 심사위원장이, 현존하는 전설의 테너 호세 카레라스가 두 손에 깍지를 끼고 경청하는 모습을 본 후 충격과 전율의 감동을 받게 되면서부터이다.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래에, 음악에 그 예술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대하는 대가의 자태는 그야말로 귀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모습을 완벽하게 내가 따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그의 모습을 따라하고픈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다.

음악은 시간 예술로서 그 순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연습실에서 아무리 좋은 소리가 나온다 해도 연주하는 그곳에서 아름답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보이는 바로 그때 아름다움을 들려주어야만 한다.

콩쿠르 1차, 2차 예선에서 두각을 나타낸 참가자가 있었는데 나를 제외한 심사위원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 참가자가 1위를 할 것이라 예상했다. 나는 3차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었다. 그런데 그 참가자가 3차 결선에서 1, 2차 예선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다른 실력을 보여주면서

결국 다크호스의 출현으로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를 하게 되었다. 2위를 한 것도 대단한 결과이지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1위 입상한 다크호스는 앞서 언급한 2년 전, 내가 다녀왔던 발세시아 국제콩쿠르에서 만났던 한국인 소프라노 만 26세의 권형신 씨였다. 그 당시 2차 예선에서 과제곡을 콩쿠르 조직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부터 시작하는 바람에 아쉽게 실격 처리가 되면서 기억에 남았던 참가자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의 깊게 보았는데 1, 2차 예선을 무난하게 통과하고 관객들 앞에서 연주회 형식으로 치러지는 결선에서는 자신의 기량을 맘껏 뽐내면서 많은 이들의 환호와 함께 심사위원 만장 일치로 1위에 등극하게 되었다. 시간 예술인 실제 연주란 그런 것이다. 콩쿠르는 바로 이런 것이다.

콩쿠르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노래, 이야기를 잘 경청할 뿐 아니라 앞으로 실생활에서 더욱더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무대 예술인이 되어야겠다는 새로운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두 개라는 간단하지만 오묘한 사실에 나는 겸손해지고 있었다.

무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의 거울처럼 투영되고 있기에 있는 그대로 잘 담고, 또 그것을 잘 듣고 있었던 관객들에 대한 존경심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 공연 예술이 존속되는 이유는 예술가의 활동이 아닌 관객의 '들음'이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금 나에게 큰 메시지가 된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니까...

호세 카레라스처럼, 관객처럼...



GERMANY



바이에른주의 주도

뮌헨의 공연장 이야기

20

베를린, 함부르크에 이어 독일 세 번째로 소개하는 도시는 뮌헨이다. 공교롭게도 독일 내 인구 순위가 연재 순서와도 같다. 인구는 베를린과 함부르크가 많지만 독일 내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를 꼽으라면 단연 뮌헨이 1등이다. 뮌헨이 위치한 바이에른주 역시 독일 연방 16개 주에서 가장 부유하다. 1972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였으며, 2014년 러시아 소치에 밀려 동계올림픽은 무산되었지만, 만약 유치되었다면 처음으로 하계, 동계 올림픽을 동시에 치르는 도시가 될 수도 있었다. 각종 조사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항상 수위에 오르내리는 뮌헨, 아니 세계 최고의 문화도시 중 하나인 뮌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특히 여름철 음악여행을 계획하게 되면 뮌헨을 찾지 않을 수 없다. 동쪽으로 150km 떨어진 곳에는 유럽 최고의 음악축제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Salzburg Festival)'이 열리며, 서쪽으로 불과 두 시간 거리의 브레겐츠에서는 오페라 축제인 '브레겐츠 페스티벌(Bregenz Festival)'이 열린다. 남쪽으로는 역시 150km 아래의 인스부르크에서 고음악 축제인 'Innsbruck Alert Music Festival'이 개최되며, 조금 더 내려가면,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베로나 오페라 축제(Verona Opra Festival)'가 열린다.

물론 뮌헨 역시 6월 말 시즌이 끝날 무렵부터 7월까지 한 달여

간은 오페라 축제가 열리는데 '뮌헨(바이에른) 오페라 축제'는 이 시기 유럽에서 열리는 오페라 축제 중 구성과 캐스팅 그리고 작품의 완성도 면에서 단연 최고이다. 하지만 뮌헨이 더욱 돋보이는 건 역시 시즌 중 찾을 때이다. 이는 사시사철 좋은 공연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가스타익 Gasteig

이자르 강변이 흐르는 강둑 언덕배기에 위치한 가스타익(Gasteig)은 독일어로 가파른(Gach)과 오르막(Steig)이 합쳐진 말로 뮌헨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이다. 동·서독으로 나뉜 오랜 냉전시대의 결과물로 생긴 베를린 문화포럼(Kulturforum)처럼 뮌헨의 가스타익 역시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대규모 공습으로 파괴된 두 개의 공연장인 오데온과 음악당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건립에 관한 논의는 전후 20년이 지난 1970년대에 이르러 시작되는데, 몇 차례의 논의와 수정 끝에 착공 7년 만인 1984년 말 완공되었다. 당시 뮌헨 필하모닉을 이끌었던 세계적인 지휘자 첼리비다케가 개관기념 축제의 지휘를 맡아 전 세계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필하모니아 홀의 객석수는 2,387석(별도로 100개의 코러스석이 있다)으로 베를린 필하모니아 홀과 라이프치히의 게반트하우스보다 각각 300석, 600석 가까이 많다. 비대칭의 부채꼴형



Musik und Thea

평면에 점차 상승하는 객석을 가지고 있어서, 연주장을 바라보는 뷰는 좋지만, 객석 후반부의 음향은 다소 부족한 편이다. 이것은 2,400석에 가까운 객석을 가진 큰 홀의 체적과 30,000평방제곱미터에 달하는 연주장 면적 때문에 그러하다. 모든 좌석의 음향이 고루 우수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에 자립식 반사패널을 측면과 천장에 설치, 보강하여 음향학적 단점을 보완했다.

- 1 뮌헨 전경
- 2 가스타익 전경
- 3 가스타익 내부

뮌헨 필하모닉 외 다수의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는 뮌헨은 가히 런던에 필적할 만하다. LSO 런던심포니를 이끌었던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얼마 전 뮌헨 필하모닉의 지휘봉을 잡았으며, 차기 베를린 필하모닉 음악감독으로 내정된 지휘자 키릴 페트렌코는 뮌헨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다. 뮌헨 소재 관현악단이 런던에 필적할 만하다고 말한 게 허투른 말이 아닌 셈이다. 마리 얀손스, 발레리 게르기예프, 키릴 페트렌코 등 세계 최고의 지휘자를 한 도시에서 만날 수 있으니 말이다.



독일의 경우 주요 도시마다 방송교향악단이 있는데 NDR 북독일방송교향악단(함부르크), MDR 중부독일방송교향악단(라이프치히), WDR 서독일방송교향악단(켈른), HR 헤센방송교향악단(프랑크푸르트), RFD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SWR 남서독일방송교향악단(슈투트가르트)이 그러하다. 하지만 이 중 최고를 꼽는다면 역시 뮌헨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BR 바이에른방송교향악단이다. 현역 최고 지휘자 중 한 사람인 마리 얀손스가 지휘봉을 잡고 있으며, 정기연주회는 가스타익 내 필하모니아(Philharmonie)와 레지덴츠 궁전에 위치한 1,500석 규모의 허쿨레스잘(Herkulesaal)에서 번갈아 연주를 한다. 개인적으로는 뮌헨에서 관현악 연주를 관람할 때는 가스타익보다 허쿨레스잘이 훨씬 뛰어나다. 하지만 시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가스타익은 단순히 공연장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스타익에는 필하모니아(Philharmonie), 칼오르프홀(Carl-Orff-Saal), 소공연장(Kleiner-Konzertsaal), 블랙박스(Black Box) 등과 같은 음악 공연장 외에도 뮌헨 시립도서관



(Stadtbibliothek München), 그리고 현재는 뮌헨 음악공연 예술대학(Hochschule für Musik und Theater)과 병합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음악원(Richard-Strauss-Konservatorium)이 함께 들어서 있고, 뮌헨 시민대학(Münchner Volkshochschule)과 뮌헨 음악학교(Münchner Musikschule) 역시 이곳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이렇듯 가스타익은 뮌헨 시민들의 교양 교육(시민대학 및 음악학교), 지식 제공(시립도서관), 예술 향유 및 여가(공연 및 강연장)를 동시에 책임지는 뮌헨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바이에른 국립오페라극장 *Bayern Staat oper*

뮌헨 국립오페라극장이라고도 불리지만 정확히는 바이에른 국립오페라극장이다. 헤센 방송교향악단이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으로 널리 알려진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최근 국내에 방한 연주를 한 바이에른 슈타츠 오케스트라는 바이에른 국립오페라극장의 관현악단이다. 이번 연주에서는 2019년부터 베를린 필하모닉 음악감독에 취임하는 지휘자 키릴 페트렌코가 주목을 받았지만, 바이에른 슈타츠오페 오케스트라 역시 뮌헨을 대표하는 관현악단 중 하나이다. 하지만 바이에른 국립오페라극장은 독일을 넘어 전 유럽을 대표하는 오페라극장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특히 레퍼토리 측면에서 세계 최고이다.

바이에른 국립오페라단의 공연무대인 바이에른 국립오페라극장은 1818년 막스 요제프의 명으로 건축가 카를 폰 피셔가 건축하였다. 한 차례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재건되었지만, 1943년 연합군의 폭격으로 다시 파괴되었다. 1963년 재개관 이후 현재의 모습으로 반세기 이상 독일 오페라의 중심에 있다. 이 극장 설립자의 이름을 딴 막스 요제프 광장(Max-Joseph-Platz)에 있는 바이에른 국립오페라극장은 레지덴츠 궁전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단연 뮌헨 최고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다. 뮌헨의 명품거리인 막시밀리안 스트라세와 면해 있는 것만 봐도 그러하다.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을 혼합한 극장의 파사드는 압도적이다. 화려한 정면만큼이나 오페라 극장 내부도 화려하다. 하지만 바이에른 국립오페라극장이 돋보이는 건 역시 시즌 프로그램과 출연진이다. 최근 내한공연이 열리면서 바이에른



5



6



7

- 4 바이에른 국립오페라극장 전경
- 5 바이에른 국립오페라극장 내부
- 6,7 오페라 '그림자 없는 여인'

국립오페라극장의 홈페이지에 한국어로 된 극장 소개글이 게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세계 최고 오페라하우스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바로 전통, 연속성 그리고 놀라운 레퍼토리라고 말할 수 있다. 바이에른 국립오페라극장은 350년이 넘는 문화적 역사를 가지고 있다. 1653년 전신인 궁정극장에서 시작된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은 이후 지금까지 매년 300개 이상의 공연에 약 60만 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한 시즌에만 작곡시기 5백 년을 아우르는 30개 이상의 오페라, 발레, 콘서트, 성악공연이 열리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오페라 하우스 중 하나라는 방증이다. 또한 뮌헨의 공연장이 돋보이는 건 하드웨어를 메우는 연주단체의 힘이다. 가스타익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이는 이유는 뮌헨 필하모닉과 BR 바이에른방송교향악단을 보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발레리 게르기에프와 마리 안손스가 지휘하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보낸다. 바이에른 국립오페라극장을 찾는 것 역시 프로덕션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힘이다.

지난달 부산시민공원에 들어서는 부산국제아트센터 설계 공모당선작이 선정되었다고 한다. 드디어 부산에도 클래식 음악전문 공연장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북항의 부산오페라하우스는 2021년 개관을 목표로 곧 착공에 들어간다. 마야흐로 부산의 공연장도 기존 다목적홀에서 전용공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우리 시에 좋은 공연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속을 채우는 일이라 생각한다.



제14회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음악페스티벌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던 지난 2004년, '재즈'라는 특정 장르로 음악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화제를 모았던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이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다. 청평댐이 완공되면서 생겨났던 북한강의 작은 섬이었던 자라섬은 쓸모 없는 황무지에서 한국 재즈의 중심지로 다시 태어나며 매년 10월, 재즈매니아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재즈는 스윙, 퓨전, 보사노바, 비밥, 월드뮤직 등 수많은 하위 카테고리로 나뉘면서 모든 장르를 수용할 수 있는 특이한 음악이다.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이렇듯 재즈의 이름으로 묶일 수 있는 수많은 음악들을 국내에 소개하며 한국 음악 생태계의 다양화를 꾀해왔다. 동시에 '자라섬국제재즈콩쿠르', '자라섬 크리에이티브 뮤직캠프', '한국 재즈 쇼케이스' 등을 개최하여 실력 있는 재즈인을 발굴, 소개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생소했던 음악 장르인 '재즈'를 소개하면서도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자연 속의 소풍' 같은 축제를 지향하면서 보다 많은 관객들이 즐거운 경험을 누리는 방식으로 재즈의 대중화에 앞장서 왔다. 1년에 고작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그동안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을 다녀간 누적관객수가 200만 명이 넘는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 중 2008~2010 유망축제, 2011~2013 우수축제, 2014~2015 최우수축제를 거쳐 2016년에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었고 자연을 생각하는 페스티벌로서 5년 연속 환경부의 녹색생활 홍보대사로 지정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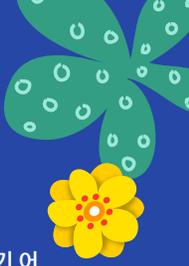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그동안 55개국, 989팀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면서 명실상부 국제재즈페스티벌로 자리매김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국제적인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해마다 다른 국가를 선정하여 집중 소개하는 '국가별 포커스 프로그램'은 매년 해당 국가의 대

관 혹은 문화원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이뤄지는데, 지난해 프랑스에 이어 올해는 이스라엘로 선정됐다. 또한 프랑스의 '재즈 솔레 포미에', 말레이시아의 '페낭 아일랜드 재즈 페스티벌', 일본의 '타카츠키 재즈 스트리트', '스키야키 및 더 월드' 등 세계 주요 재즈 축제와 MOU를 맺고 매년 방문하며 교류를 가져오고 있다.

10월 20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올해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에서는 포커스 컨트리인 이스라엘을 비롯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 20개국 총 42개팀, 257명의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른다. 먼저 이번 라인업에는 재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메인 스트림과 제3세계가 공존한다. 자라섬을 찾는 만 83세의 데이브 그루신과 디노 살루치를 비롯해 만 76세의 추초 발데스 등의 거장들은 최근까지 꾸준히 활동 중이며, 1970~80년대 퓨전 재즈 시대를 풍미했던 데이브 그루신의 'Mountain Dance(1979)'와 같은 음반은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의 아비사이 코헨과 노르웨이의 야콥 영은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 중인 아티스트인 동시에, 미국이 아닌 다양한 국가의 재즈신을 대표한다. 국내 라인업에서는 한국 재즈 1세대인 노장 보컬리스트 박성연부터 현재 한국 재즈의 대표 중견급 아티스트인 말로, 서영도, 배장운을 비롯해 2016 자라섬국제재즈콩쿠르 출신의 이선재, 김준범 등이 함께 한다.

또한 이번 최종 라인업은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출연 아티스트 중 역대 가장 많은 그래미상 수상자를 자랑한다. 그래미상 10회, 노미네이트 38회에 빛나는 데이브 그루신과 그래미상 9회, 노미네이트 18회의 추초 발데스, 그래미상 4회, 노미네이트 10회의 곤잘로 루발카바, 그래미상 1회, 노미네이트 16회의 리 릿나위를 비롯해 마이크 스텐, 아비사이 코헨 등 노미네이트된 아

10월 20일(금)~22일(일) 가평 자라섬 일대
3일간 10만원, 2일간 8만원, 1일간 5만원(청소년 1만원 3만5천원)
(사)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031-581-2813~4, www.jarasumjazz.com



티스트까지 포함하면 총 24회 그래미상 수상, 90회 노미네이트에 이른다.

이번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출연진 중 가장 주목을 받는 아티스트는 쿠바 재즈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거장, 추초 발데스 & 곤잘로 루발카바, 그리고 재즈 명가 ECM를 대표하는 디노 살루치 그룹이다. 추초 발데스 & 곤잘로 루발카바는 현재 쿠바를 넘어 모든 재즈씬을 대표하는 두 피아니스트로, 아프로 쿠반의 정서 위에 클래식과 재즈를 더해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것으로 이름이 높다. 이들 듀오는 그동안 국내에서 선보인 바 없는 거장들의 만남으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이 14년간 개최된 이래로 초청한 아티스트 가운데 가장 독특한 조합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디노 살루치 그룹을 이끄는 아르헨티나

의 거장 디노 살루치는 탱고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러나 흔히 접하기 어려운 반도네온을 연주하는 음악가로, 1982년 앨범 'Kulturmi'을 시작으로 재즈 명가 ECM의 대표 주자로서 30여 년간 자리해왔다. 단순히 탱고 또는 재즈로 정의할 수 없는 디노 살루치의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은 팻 메스니, 키스 자렛과 같은 거장들과 함께 ECM 레이블의 고유한 특징을 만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즈의 정신을 담으면서도 대중성까지 놓치지 않는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의 올해 라인업은 재즈 팬을 포함한 폭넓은 관객층을 만족시켜줄 것이다.

10월, 잔디밭에 누워 쏟아지는 별을 맞으며 최고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가평 자라섬으로 재즈 여행을 함께 떠나보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계의 보고 합천 정양늪 생명길 탐방

기온이 내려가면서 풀잎에 '흰 이슬(白露)'이 맺힌다 하여 이름 붙여진 절기 '백로'.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백로에서 하루 지난 9월 8일, 정기회원과 떠나는 환경과 문화가 함께하는 '2017 에코여행' 두 번째 행사가 펼쳐졌다.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에코투어'는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문화의 향기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8월에도 '바람의 고장' 영덕의 풍력발전단지에서 미래 대체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이번 9월 여행지는 생태계의 보고로 다시 태어난 합천 정양늪으로, 빼어난 경관과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정양늪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배워보기로 했다.

이른 아침, 합천으로의 여행을 위해 정기회원 가족들이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였다. 특히 이번 여행에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안주희, 이현주 씨가 동행하면서 부산시립예술단과의 특별한 만남에 회원들을 더욱 설레게 했다.

세 시간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이번 에코 여행의 중심지인 정양늪 생태공원. 지금으로부터 약 1만년 전 후빙기 후 해수면의 상승과 낙동강 본류의 퇴적으로 생겨난 정양늪은 황강 지류인 아천천의 배후 습지로 경관이 빼어나면서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 생태학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황강의 수량과 수위 감소로 육지화가 가속화되어 한때 최대 100ha에 이르렀던 면적은 40여ha가 될 정도로 크게 줄면서 습지로서의 기능이 점점 상실되자 합천군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정양늪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1,2,3,4 정양늪 생태공원
5,6 합천영상테마파크



정양늪은 최근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이어주는 생명
의 터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정양늪 3.2km 주변 탐방로에는 나무데크와
황토흙길이 갖춰진 생명길이 조성되어 탐방객들은 늪 주변을 한 바퀴 돌며
갖가지 생태 체험과 늪 전경을 조망할 수 있다.

**“이곳 생명길은 정양늪의 위대한 생명력으로 인간과 자연이 미래에도 서로 의
지하며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자연이 뿜어내는 신선한 공기를 맞으며 해설사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생명길
을 걷는 회원들의 얼굴에는 어스새 생기로 가득하다. 모처럼 자연이 주는 여
유 속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 정기회원 가족들은 맛있는
점심식사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후 일정자인 합천영상테마파크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2004년에 건립된 합천영상테마파크는 1920년대에서 1980년대를 배
경으로 하는 국내 최고의 시대물 오픈세트장으로, 경성역(서울역), 총독부
(조선통감부), 영화 ‘포화속으로’, ‘마이웨이’ 세트장, 청와대 세트장 등 150
동이 넘는 특화된 세트장이 자리하고 있다. 얼마 전 종영한 유아인, 임수정
주연의 tvn드라마 ‘시카고 타자기’를 비롯해 드라마 ‘각시탈’, ‘빛과 그림자’,
‘서울1945’, ‘에덴의 동쪽’, ‘경성스캔들’과 영화 ‘박열’, ‘인천상륙작전’, ‘해
여화’, ‘암살’, ‘씨니’, ‘태극기 휘날리며’ 등 지나간 시대를 배경으로 한 190
편의 영화, 드라마, 광고, 뮤직비디오 등이 이 곳에서 촬영되었다.

최근에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의 전차거리와 적산가옥을 재현한 영화 ‘자
전차왕 엄복동(가제)’의 촬영이 진행되었고 하반기 개봉을 앞두고 있는 정우
성, 광도원 주연의 영화 ‘강철비’가 이곳의 청와대 세트장에서 촬영되기도 했
다. 특히 지난해 7월 개장한 청와대 세트장은 청와대 실제 크기의 68%로





7,8,9 합천영상테마파크
 10,11 합천댐 물문화관
 12 부산시립무용단과 함께하는 우리춤 체조

축소, 재현해놓아 매스컴에서나 볼 수 있었던 청와대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합천영상테마파크의 새로운 '핫 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다.

골목마다 독특한 분위기와 볼거리로 가득한 영상테마파크에 입장하자 어느새 과거로의 여행이 시작된다. 수십 년의 세월을 그대로 재현해서일까. 그 시대를 직접 겪었던 고령(?)의 회원들이 들려주는 소싯적 경험담에 회원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야외의 더운 날씨 속에서도 정기회원 가족들은 드라마,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장면을 서로 떠올리며 추억남기기에 여념이 없다.

이번 합천여행의 마지막 장소인 '물문화관'으로 떠나기 앞서 회원들은 청와대 세트장 로비 한켠에서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연주회, 이현주 씨의 지도로 간단한 몸풀기 체조를 배웠다. 몸 따로 마음 따로의 엉성한 자세에 저절로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장시간 버스 승차와 답사로 찌뿌둥했던 몸이 무용단원의 구령에 맞춰 움직이자 한결 가벼워졌다.

마지막 탐방지인 '합천댐 물문화관'은 합천 다목적댐의 시설현황과 기능

을 소개하고 물의 소중함과 물부족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세워진 공간이다. 지난 1989년 준공된 합천댐은 저수량 7억 9천만 톤으로, 우리나라 다목적댐 16개 중 6번째로 큰 규모이다. 특히 합천댐은 지난 2012년 7월 세계 최초로 저수지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Solatus'를 준공, 500kw 전력을 생산하여 상용화한 최초의 다목적댐으로, 물문화관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직접 설명 듣고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합천댐 물문화관'에서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합천 여행을 모두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부산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짧은 여정이었지만 자연의 아름다움과 환경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던 합천 여행은 회원들의 가슴 속에 긴 여운으로 남을 것이다.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통영 문화예술기행



일정

- 07: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통영도착, 첨마박물관,
이순신공원 탐방
- 11:00 부산시립예술단과 만남
- 12:30 중식
- 13:00 동피랑벽화골목, 윤이상기념관,
박경리기념관 탐방
- 16:30 부산으로 출발

11.10일

늦가을빛으로 물든 한려수도의 심장 통영으로 떠나는 문화예술기행.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과 시인 유치환, 소설가 박경리 등 위대한 예술가들의 고향인 통영에서 그들의 숨결을 느껴본다.

10 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 회원

- | | |
|---------------|----------------|
| 권호경(동래구 명륜로) | 박은진(해운대구 대청로) |
| 김남희(금정구 식물원로) | 박창열(남구 석포로) |
| 김창호(남구 석포로) | 이경자(남구 황령대로) |
| 김혜숙(남구 수영로) | 이재일(남구 황령대로) |
| 박선정(금정구 금강로) | 정연신(부산진구 전포대로) |

● 기존 회원

- | | |
|-----------------|----------------|
| 박은경(해운대구 마린시티로) | 전태현(남구 오륙도로) |
| 백영심(동래구 여고로) | 정명화(수영구 장대골로) |
| 박용주(부산진구 중앙번영로) | 정신자(남구 분포로) |
| 성은경(해운대구 달맞이길) | 정영곤(부산진구 백양대로) |
| 윤인영(해운대구 반여로) | 최경자(남구 유엔로)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엽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부담)

| 신청방법 | 엽서·전화·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View Plus

INVITATION TO THE ARTS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글로벌아트홀 | 505-5995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수아트홀 |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포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스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 623-6232, 245-5919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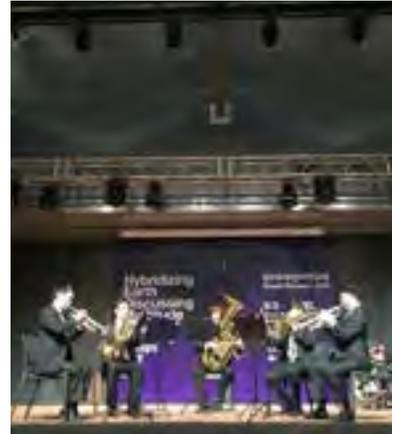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통합기념
시민뜨락축제



무지카비바



이어진트리오



10월 1일부터 (재)부산문화회관과 통합, 운영되는 부산시민회관이 통합기념으로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10월 11일부터 나흘간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시민뜨락축제'는 부산시민회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축제의 장으로, 클래식에서부터 무용,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축제 첫날인 11일에는 파워풀하면서 호소력 있는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앙상블 '무지카비바'와 부산, 경남지역의 관악연주자들로 결성된 '후브라스콰이어'가 무대에 오른다. 지난 1998년 창원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를 중심으로 결성된 무지카비바는 그동안 서울 이원아트홀 초청 아티스트 콘서트, 임진각 힐링 뮤직페스티벌, 한·러 수교 25주년 기념 초청음악회, 유네스코 40주년 기념음악회, 광복 70주년 기념 몽골필하모니 초청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지난 2011년 창단된 후브라스콰이어는 2012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웅장한 관악의 매력을 대중에게 전해주고 있다.

12일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발레단체인 '김옥련발레단'과 부산, 경남지역의 플루티스트들로 결성된 '나눔플루트앙상블'이 관객과 만난다. 김옥련발레단은 지난 1995년 창단 이후 활발한 창작 활동과 우수 작품의 레퍼토리화로 창작발레 활성화에 주력해

왔으며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폭넓은 관객 개발로 부산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나눔플루트앙상블은 2012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나눔음악회를 통해 음악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매년 아시아 플루트 연맹, 일본 플루트 컨벤션 등에 초청받아 해외교류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13일에는 피아니스트이자 대동대학교 뉴뮤직과 학과장인 강혜정 교수를 중심으로 결성된 '강혜정 트리오'와 재즈보컬리스트 해원이 함께하는 재즈무대, 보컬 미소의 개성 있는 보이스 컬러를 중심으로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는 밴드 '버닝소다'의 무대가 펼쳐진다. 14일에는 2017년 발리국제합창제에서 심사위원 예술특별상, 심사위원 최고자상 등 6개 부문 수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어쿠스틱한 사운드를 기반으로 풍부하면서도 섬세한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문센트'가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이밖에 축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 야외광장 일원에서는 프리마켓과 버블매직체험이 함께 열리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일정

- 10월 11일(수) 무지카비바, 후브라스콰이어
- 10월 12일(목) 김옥련발레단, 나눔플루트앙상블
- 10월 13일(금) 강혜정 트리오&재즈보컬리스트 해원, 버닝소다
- 10월 14일(토)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문센트

일시 10월 11일(수) - 13일(금) 오후 12:00, 14일(토) 오후 1:00 장소 부산시민회관 광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민회관 630-52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정희정의 소리로 보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연출, 진행 정희정



지휘 김현수



소프라노 오미선



테너 신동원



바리톤 박대용

21세기 해양문화도시 부산을 대표할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정희정의 소리로 보는 오페라-라 트라비아타'가 10월 1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오페라 갈라콘서트와 성우 드라마의 만남을 통해 오페라를 새롭고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정희정의 소리로 보는 오페라'는 지난해 KNN 라디오가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한 오페라 다큐드라마 '2016 배리어프리 오페라' 후속 프로젝트로, 전작에서 돋보이는 아이디어와 뛰어난 연출로 호평받았던 KNN 정희정 아나운서가 다시 한 번 연출과 진행을 맡아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장애물을 없애는 움직임을 의미하는 말이다. 지난해 최초로 오페라에 배리어프리를 도입한 '배리어프리 오페라'는 시각적 효과에서 벗어나 화면해설뿐만 아니라 성우의 목소리 연기와 음향효과를 이용, 소리가 주는 상상력에 집중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페라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정희정 아나운서의 연출과 진행, 목포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김현수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의 연주로, 소프라노 오미선, 테너 신동원, 바리톤 박대용과 성우 이선, 유호한, 배한성이 각각 비올레타, 알프레도, 제르몽 역을 맡아 베르디의 아름다운 음악과 연기를 접목시킨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선보인다.

서울종합예술학교 교수로 있는 지휘자 김현수는 서울대학교 작곡과 및 동대학원 지휘과,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아론 코플랜드

음악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KBS교향악단, 부천필하모닉, 원주시립교향악단, 앙상블 TIMF 등 국내외 우수 오케스트라와 오페라 '라 보엠', '라 트라비아타', '세빌리아의 이발사', '리골레토' 등 오페라 무대를 지휘한 바 있다.

주인공 비올레타 역의 소프라노 오미선은 벨리니, 페르초 탈리아비니, 아트리, 조바니 탈렌티, 수비아코 국제콩쿠르 입상,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여자 주역상, 기독교문화예술 오페라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탄탄한 호흡과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인 테너 신동원은 오페라 '아이디'의 라다메스역으로 영국 코벤트 가든의 로얄 오페라 하우스에 화려하게 데뷔한 후 국내외 우수 오페라단에서 주역으로 활동하면서 수원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다수 무대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리톤 박대용은 이태리 프란체스코 칠레아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엔나 국제콩쿠르 3위, 콜레페로 국제성악콩쿠르 2위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다.

또한 '형사 가제트', '백가이버'로 유명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우 배한성과 '뽀로로'로 유명한 성우 이선,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성우 유호한이 출연, 목소리 연기로 만나는 색다른 '라 트라비아타'를 만날 수 있다.

일시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I 금난새 & 부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불멸의 악성(樂聖)’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부산에서 펼쳐진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마련되는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에서는 10월 19일 베토벤 교향곡 제1번을 시작으로 매월 총 10회에 걸쳐 내년 6월까지 9곡의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만날 수 있다.

10월 첫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11월과 12월, 내년 3, 4월에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5차례 열리며, 나머지 무대는 올해 12월과 내년 1, 2월, 그리고 5, 6월 부산의 새로운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고려재강 F1963에서 진행된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교향곡과 더불어 낭만파 시대의 대표적인 기악 협주곡을 실력 있는 연주자들의 협연으로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이 자랑하는 지휘자 금난새와 이번 무대를 위해 새롭게 구성된 부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BFO: Busan Festival Orchestra)가 함께하면서 관객들에게 보다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베토벤은 고전파음악을 완성하고 낭만악파로의 이행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작곡가이자 악성으로 추앙받는 위대한 음악가이다. 생전 32개의 피아노곡과 16개의 현악 4중주곡, 그리고 9개의 교향곡을 발표했으며, 특히 그의 교향곡들은 클래식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작품이나 그만큼 정복하기 어려운 곡들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교향곡들은 클래식 애호가만 아니라도 영화나 드라마, TV 광고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미 우리에게도 친숙하다. 특히 그의 마지막 교향곡인 9번 ‘합창’은 평론가들로부터 ‘교향곡의 완성자’가 만든 ‘교향곡의 완결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의 화려한 막을 여는 이번 첫 무대에서는 금난새 지휘, 첼리스트 심준호 협연, 부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베토벤 ‘교향곡 제1번 작품 21’과 드보르작 ‘첼로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를 들려준다. 베토벤 ‘교향

일시 10월 19일 목요일 오후 7: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휘 금난새



첼로 심준호



곡 제1번'은 교향곡의 역사뿐 아니라 서양 음악사의 전환점이 된 베토벤의 9개 교향곡 중 기념비적인 첫 작품으로, 초연은 1800년 4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그의 지휘로 열렸다. 베토벤은 이 작품에서 전형적인 18세기 사이즈의 오케스트라, 바꿔 말하자면 하이든의 마지막 작품과 정확히 같은 편성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으로 작곡했으나 곡의 내용면에서 새로움과 풍부한 아이디어는 분명히 하이든의 작품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그래서 이 작품을 두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음악평론가이자 음악학자였던 영국의 도널드 토베이는 경은 '베토벤의 18세기에 대해 고별을 고하는 작품'이라 평가기도 했다.

이번 무대를 시작으로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을 이끌 지휘자 금난새는 1977년 최고 명성의 카라얀 콩쿠르에서 입상한 후 유러피안 마스터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거쳐 모스크바 필하모닉, 독일 감머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했으며, KBS교향악단 전임지휘자와 수원시립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 인천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다. 1998년부터는

벤처 오케스트라인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현, 뉴월드 필하모닉)를 창단,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시민들을 위한 다채롭고 풍성한 음악을 선사하고 있으며, 특히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재치있는 해석로 클래식 음악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만들어왔다. 금난새는 기업과 예술의 성공적 만남을 이룬 공로로 2006년 한국 CEO 그랑프리 문화예술부문 수상,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세종상 예술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성남시립예술단 총감독이자 상임지휘자, 한경 필하모닉 초대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휘자 금난새와 함께할 부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를 위해 금난새가 음악감독으로 있는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부산 출신의 젊고 유망한 연주자들로 새롭게 결성된 단체로,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기간 동안 함께하여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의

첫 협연자로 무대에 서는 첼리스트 심준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차세대 실력과 첼리스트로, 세계적인 거장 나탈리아 구트만으로부터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연주하는 진정한 음악가'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금호문화재단의 영재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인 금호영재콘서트를 시작으로 2006년 제32회 중앙음악콩쿠르 우승, 2012년 안토니오 아니그로 국제첼로콩쿠르 2위, 2010년 쥘레스 뮤지컬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이자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승을 함으로써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ECMA(European Chamber Music Academy) 멤버로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심준호는 현재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심준호는 고금을 통틀어 '첼로 협주곡'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로 손꼽히는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나 단조 작품 104'를 들려준다.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2017. 10. 19(목)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베토벤 교향곡 제1번 작품 21 /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

2017. 11. 19(일)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베토벤 교향곡 제2번 작품 36 /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작품 18

2017. 12. 29(금)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7. 12. 30(토) 오후 7:00 고려제강 F1963 콘서트홀
베토벤 교향곡 제9번 작품 125 '합창'

2018. 1. 20(토) 오후 7:00 고려제강 F1963 콘서트홀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작품 55 / 차이콥스키 로코코 변주곡 작품 33

2018. 2. 24(토) 오후 7:00 고려제강 F1963 콘서트홀
베토벤 교향곡 제8번 작품 93 /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77

2018. 3. 24(토)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베토벤 교향곡 제4번 작품 60 /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제2번 작품 102

2018. 4. 21(토)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베토벤 교향곡 제7번 작품 92 /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64

2018. 5. 26(토) 오후 7:00 고려제강 F1963 콘서트홀
베토벤 교향곡 제6번 작품 68 '전원' /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 16

2018. 6. 23(토) 오후 7:00 고려제강 F1963 콘서트홀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작품 67 / 엘가 첼로 협주곡 마단조 작품 85

*상기 프로그램 및 일정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아시아 민족음악의 밤



지휘 이정필



리코더 권호진



바이올린 이현우



양금 윤은화



비파 조양

지난해 처음 개최된 아시아 대표 문화콘텐츠펙 축제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마련한 특별한 무대 '아시아 민족음악의 밤' 2017년 무대가 10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고 리코더 연주자 권호진,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우, 양금 연주자 윤은화, 비파 연주자 조양, 소리꾼 박성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팀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악관현악을 비롯한 다양한 협주곡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연주회의 시작을 알리는 첫 곡은 조원행 곡 창작 국악관현악 '대지 II'로, 우리 인간의 근본이자 뿌리인 소중한 대지 위에서 즐거움과 슬픔, 때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한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돌이켜보며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의 존재와 더불어 자연의 변화무쌍한 신비로움 앞에 느끼는 경이감을 표현한 곡이다. 이어지는 곡은 김선제 곡 '비손'으로, 첫 새벽, 첫 우물물을 길어다 소반 위에 올려놓고 가족의 안녕을 빌던 우리 어머니들의 소박한 의식인 비손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 박성희의 구성진 소리로 들려준다.

현재 스위스 바젤 스킨라 칸토룸 Master of Arts in Performance, Alte Musik, Renaissance-Romantik 과정에 있으며 Baroque Ensemble, Renaissance Recorder Consort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리코더 연주자 권호진이 들려주는 단소협주곡 '초소의 봄(박위철 편곡)'은 지난 1965년 북한이 작곡가 공영송이 작곡한 단소협주곡으로,

단소와 가야금 2중주곡으로 편곡되었다가 1980년 다시 가야금 독주곡으로 편곡되면서 가야금 독주곡으로 더 많이 알려진 곡이다. 전통음악의 섬세한 특색을 잘 살리면서도 빠르고 다양한 기교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작곡된 작품으로, 이번 연주에서는 단소가 아닌 리코더 협연으로 선보인다. 스페인 집시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선율을 주제로 한, 우리에게도 친숙한 사라사테의 대표작 '지고이네르바이젠'은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악대학교 박사과정 졸업예정인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우의 연주로 들려준다.

이번 연주회의 마지막 무대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현악기 중에서도 유일하게 쇠줄을 가진 현악기인 양금과 서역에서 들어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연주되어 온 동양의 전통 현악기인 비파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먼저 세계양금협회(CWA) 한국지부 및 한국양금양상를 대표, 전주소리축제 소리프론티어 대상, 중국 전국기악콩쿨 국가급(금상), 문화관광부 아시아파워브랜드 악기제작부문(양금) 대상을 수상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금 연주자 양현화가 들려주는 양금협주곡 '바람의 노래(홍정희 곡)'에 이어 중국광파민족악단 비파 연주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파 연주자 조양이 가야금협주곡 '절영의 전설(강봉천 곡)'을 비파 협연으로 들려준다.

일시 10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독도의 날 기념 특별연주회 독도지킴이 서경덕 교수와 함께하는 독도 네 번째 이야기

지휘 이견륜



특별출연 서경덕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를 소재로 한 창작곡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려주는 독도의 날 기념 특별연주회 '독도 네 번째 이야기'가 10월 25일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독도의 날'은 지난 1900년 10월 25일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공포된 날이다. 이 날을 기념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우리 땅 독도를 음악으로, 마음으로 기억하고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지난 2014년부터 독도를 테마로 한 '독도 이야기'로 특별한 무대를 가져오고 있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수석지휘자 이견륜이 이끄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해 부산서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 채범석), 부산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 김태경), 부산남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 김주곤)과 해군작전사령부, 샌드아티스트 김미현이 출연, 독도를 소재로 한 시에 작곡가 신진수, 류지원, 장운선, 정삼화, 김태호가 곡을 붙인 창작위촉곡들로 독도의 의미를 되새긴다. 특히 그동안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등 세계 유력 언론에 독도 광고를 게재하며 '독도지킴이'로 활동해온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특별출연, '나의 사랑 독도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관객과 함께 나누며 독도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첫 무대는 부산서구소년소녀합창단이 들려주는 작곡가 신진수의 '독도잡자리(김녹촌 시)'와 '아리랑 독도(이복자 시)'.

이어서는 부산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이 류지원 작곡 '독도는 빨간 우체통(류지원 시)', 장운선 작곡 '독도는 꽃밭(고희영 시)'을, 부산남구소년소녀합창단이 임광수 작곡 '나의 사랑 독도야(임광수 시)', 정삼화 작곡 '해님 달님(선용 시)'을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무대로, 작곡가 김태호가 곡을 붙인 '독도 上, 下(김별 시)' 등 신작곡들을 노을샌드아트 아카데미 전속강사 김미현의 샌드아트와 함께 들려준다.

작곡가 신진수는 (사)한국동요 문화협회 이사, 파랑새 동요회 감사로 있으며 그동안 동요곡집 1 '푸른바다 돌고래', 동요곡집 2 '마음이 이슬처럼'을 출판했다. 작곡가 류지원은 부산진청소년오케스트라, 동주원드오케스트라 지휘자, 살림어린이합창단 음악감독, 동요사랑회 회장으로, 정관초등학교 교사로 있는 작곡가 장운선은 동요사랑회 회원, 부산어린이성가작곡회 회원으로, 명진초등학교 교사로 있는 정삼화는 부산어린이성가작곡회 회원으로, 그리고 향만물류고등학교 교사로 있는 김태호는 마린뮤즈콰이어 지휘자, 부산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 지도강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일시 10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0, 3170~1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웰빙콘서트 시즌 2



지휘 조운범



소프라노 박지휘



테너 이동명



바리톤 김종표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해 부산문화회관이 2017년 마련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웰빙 콘서트 시즌 2' 두 번째 무대가 10월 2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음악계의 괴물'이라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운범의 깊이 있는 해설,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김해시립합창단 지휘자 박지운의 지휘, 소프라노 류진교, 테너 이동명, 바리톤 김종표의 협연으로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레온카발로 '팔리아지', 베르디 '팔스타프', 푸치니 '나비부인'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뛰어난 말솜씨와 해박한 지식으로 관객들을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이끌 조운범은 파격적인 기획과 도전으로 수많은 매스컴의 찬사를 받은 현악4중주단 '콰르텟엑스'의 리더로, 지난 2007년부터 극동아트TV(전 예당아트TV)의 '콰르텟엑스'와 함께하는 조운범의 파워클래식을 진행하며 해설자로 명성을 날렸으며 현재는 라디오 '노홍철의 굿모닝 FM'의 클래식 음악 코너 진행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휘자 박지운은 이탈리아 프로시노네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로마의 로마네스카 오페라단 상임지휘자 및 ARAM, AIART 국제음악아카데미 교수를 역임했다. 그동안 이탈리아, 러시아, 체코, 루마니아, 중국 등 해외 우수 극장과 국내외의 다수 오페라 무대를 지휘해온 박지운은 국립오페라단 창작공모전 당선작 '도시연가', 국립오페라단 우수작품 재공연지원사업 당선작 '운수 좋은 날', 창작오페라 '선덕여왕', '포은 정몽주' 등을 작곡, 무대에 올린 바 있다.

현재 대신대학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류진교는 계명대학교 성악과와 이태리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밀라노 마자테 도니제티 시립음악원(연주학 박사)을 졸업하고 이태리 라우리 불피 국제콩쿠르 1위, 마리아 카닐리아 2위, 이리스 아다미 꼬라멧티, 자코모 아라갈, 산레모 국제콩쿠르 등에서 입상한 바 있다. 이태리 로마 국립극장 주최 오페라 '라보엠' 콩쿠르에서 미미 역으로 우승한 바 있으며, 독일 칼스루에 국립극장 초청 오페라 '나비부인' 주역을 비롯해 국내외 다수 무대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백석대학교 교수로 있는 테너 이동명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밀라노 시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2006 최고테너상을 비롯 이탈리아 몬테베르디콩쿠르 1등, 부스폴도콩쿠르 1등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그동안 오페라 주역을 비롯 '오페라의 유령', '웨스트사이드스토리', '스위니 토드' 등 뮤지컬 주역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현재 보컬콘서트서울 솔리스트로 있는 바리톤 김종표는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오페라과 전문사(대학원과정)를 졸업하고 예술의전당 기획오페라 '미술피리', 국립오페라단 '주몽', '돈 조반니', 서울시오페라단 '열여섯번의 안녕', '도요새의 강' 등 다양한 무대에서 오페라 전문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시 10월 26일 목요일 오전 11: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비엔나 챔버 플레이어즈'



실력과 해외 실내악단들이 전하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실내악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2017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두 번째 주인공인 비엔나 챔버 플레이어즈가 10월 27일 부산을 찾는다.

실내악단의 다채로운 앙상블과 특색있는 레퍼토리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된 '2017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는 지난 6월,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인 그라츠를 대표하는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10월 27일 비엔나 챔버 플레이어즈, 11월 1일 일본 텔레만 실내악단의 무대로 이어진다.

음악의 도시 비엔나의 감성과 아름다운 사운드를 트레이드 마크로 한 비엔나 챔버 플레이어즈는 현재 빈 국립 폭스오퍼의 부악장으로 있는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유희승과 데야나 골로체 박, 1992년부터 수석 비올리스트로 활동해온 페터 사가이쎈, 빈 폭스오퍼 부수석이자 빈 챔버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첼리스트 마이클 윌리엄스, 그리고 빈 폭스오퍼 수석인 클라리넷리스트 헬무트 회들, 바수니스트 비앙카 슈스터 등 비엔나를 대표하는 빈 국립 폭스오퍼의 악장 및 수석단원들로 구성된 6중주 앙상블이다.

매년 300회 이상의 공연을 소화해내는 특급 오케스트라의 멤버답게 뛰어난 음악성과 정교한 팀워크, 다양한 레퍼토리로 사랑받고 있는 비엔나 챔버 플레이어즈는 특히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의 현악 4중주에 클라리넷과 바순이 함께하는 독특한

구성으로, 이번 무대 역시 국내 무대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채로운 곡들을 들려준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등을 그들만의 색채로 편곡한 연주곡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음악을 대표하는 란너의 '알츠'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페르페툼모빌레', 그리고 관악기의 매력이 돋보이는 바순과 클라리넷 협주곡 등 다양한 앙상블 조합을 감상할 수 있다.

한편, 11월 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2017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마지막 주인공인 일본 텔레만 실내악단의 무대가 이어진다. 지난 1963년 창단된 후 바로크시대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과 유려한 연주로 국내외 무대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온 텔레만 실내악단은 이번 공연에서 국내에서는 생소한 바로크시대 음악을 중심 레퍼토리로 바흐의 '하프시코드 협주곡', 비발디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을 비롯해 올헤서거 250주기를 맞으며 국내외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텔레만의 명곡들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음악이 만들어지던 시대에 사용했던 악기와 연주방식을 최대한 사용, 연주함으로써 시대악기가 가진 이색적인 음색과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일시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7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2017 
영화의
바다로
나아가다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영화의 바다로 22번째 항해를 시작한다.

예년과 다름없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영화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75개국 총 298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상영작품 중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상영되는 월드 프리미어는 100편, 자국 외 최초상영인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는 29편에 달하는 등 매년 그 비중이 높아지면서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영화제 개최 이후 처음으로 여성감독들의 작품으로 개막작이 선정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개막작으로는 독특한 스타일로 베를린, 칸 등 해외 유수 영화제의 관심을 받은 신수원 감독의 신작 '우리정원'. 어느 여인의 사랑과 아픔을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감독 특유의 기발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우리정원'은 동물적 욕망과 질서로 가득 찬 세상에서 식물로 살아야 하는 여자의 가슴 아픈 복수극으로, 오랜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배우 문근영이 식물을 닮은 여인 '재연'을 연기한다. 폐막작으로는 배우이자 감독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만 출신의 감독 실비아 창이 '상애상찬'으로, 각 세대를 대표하는 세 여성의 삶을 통해 중국 근현대사를 은유적으로 관통하며 그들의 삶을 담담하면서도 섬세하게 그려낸다. 직접 주역을 맡은 실비아 창 감독 외에도 중국 5세대

를 대표하는 감독 티엔 주앙주앙이 남편 역을 맡았으며, 자유분방한 딸로 출연한 랑 유에팅은 2015년 폐막작 '산이 울다'에 이어 두 번째 폐막작 주연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중화권 영화의 현재에서부터 새롭게 등장하는 경향, 주요한 흐름까지 다양한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대만과 홍콩에서는 주요 감독들이 중국으로 무대를 옮기며 생긴 공백을 신인감독들과 독립영화들이 등장하면서 홍콩영화 '쪽빛 하늘'이 7년 만에 '뉴 커런츠' 부문에 선정되는가 하면 올해 대만에서 가장 화제를 모았던 '대불+'를 비롯해 다수의 대만영화가 '아시아 영화의 창'에 초청받았다. 또, 중국영화로는 폐막작인 '상애상찬'을 비롯해 '뉴 커런츠'에 초청된 '여름의 끝', '선창에서 보낸 하룻밤', '뉴 커런츠' 출신의 리샤오핑, 리튀준의 신작 '재', '미래로 걸어간다' 등이 초청받으면서 중화권 영화의 다양한 성찬을 즐길 수 있다.

개별 작품으로 가장 많은 수의 작품이 초청된 국가는 바로 일본으로, 올해는 유키사다 이사오, 고레에다 히로카즈, 구로사와 기요시, 가와세 나옴이 등 일본 대표 감독들뿐만 아니라, 관객들이 기다려온 기타노 다케시의 '아웃레이지 최종장', 처음으로 부산을 찾는 요시다 다이이치 감독의 신작 '금구모괄', '아름다운 별', 히로키 류이치 감독의 '그녀의 인생은 잘못이 없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등 중견 감독들의 신작들로 풍

10월 12일(목)~21일(토)

영화의전당,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CGV 센텀시티, 메가박스 해운대(장산),
동서대학교 소항씨어터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1666-9177, www.biff.kr



성하다. 또한 올해 일본독립영화의 발견이라 할 수 있는 니노미야 류타로 감독의 '그 남자, 류타로', 요시유키 키시 감독이 연출한 5시간 러닝타임의 야심작 '황야' 등 독립영화뿐 아니라 천재 애니메이터로 불리는 유야 마사야키의 미니 특별전, 그리고 국내 관객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츠키카와 쇼 감독의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 이와이 순지 감독의 동명의 영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쏘아올린 불꽃, 밑에서 불까? 옆에서 불까?' 등이 관객과 만난다.

평소 관람할 수 없는 다양한 아시아영화를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최근 아시아영화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와 필리핀 영화를 비롯해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을 지닌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감독들의 작품들도 다수 초청받았다. 또한, 올해 비아시아권 영화는 한 해 동안 세계 영화계에서 화제가 됐던 거장 및 중견 감독들의 신작, 미래를 이끌어갈 신인들의 창의적인 데뷔작들이 선보인다. 타비아니 형제, 아키 카우리스마키, 브루노 뒤몽처럼 영화사에 이미 획을 그은 거장들의 작품들은 물론 누벨바그의 중심에 있었던 장 피에르 레오가 주연을 맡은 장뤽 고다르의 1980년대 영화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상영된다. 영미권의 강세가 두드러진 다큐멘터리 부문에서는 다큐멘터리의 대가 프레드릭 와이즈먼의 '뉴욕 라이브러리에서'와 미국 SXSW영화제 대상작 '더 워크' 등 수준 높은 작품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유럽과 영미권, 아프리카, 중남미권에서 온 놀라운 데뷔작과 독립영화들도 '플래시 포워드' 섹션을 통해 다채롭게 소개된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소개되는 한국영화는 개막작인 '우리정원'과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의 '나비잠(감독 정재은)'을 비롯해 뉴 커런츠 부문 3편, 한국영화의 오늘-파노라마 부문 16편, 한국영화의 오늘-비전 부문 11편 등으로 중견과 신인이 조화를 이룬 풍성한 성찬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한국영화의 오늘-파노라마 부문 16편 가운데 8편은 미개봉작으로 전수일, 오명, 방은진, 신연식, 민병훈, 김성호, 박기용, 고은기 등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중견감독들의 신작이 대거 선보이며 개봉판에서 19분 정도가 추가된 류승완 감독의 '군함도:감독판'이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다. 한국영화회고전의 주인공은 한국영화사의 독보적인 배우인 신

- 1 개막작 '우리정원'
- 2 오픈시네마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
- 3 폐막작 '상애상친'
- 4 와이드앵글 '뉴욕라이브러리에서'

성일로 그의 대표작 8편이 상영되며, 올해 예심을 도입해 선정한 한국 단편 경쟁부문에는 15편, 이밖에 한국 다큐멘터리는 경쟁부문 5편, 쇼케이스 4편이 선정되어 상영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 프랑스 칸 영화제 출장 중 심장마비로 숨진故 김지석 수석프로그래머를 기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우선 영화제 기간 중인 10월 15일, 한국과 아시아 영화인들의 마음을 담은 추모행사가 열리며, 고인을 추모하는 영화인들의 애정을 담은 책자가 발행된다. 또한故 김지석 수석프로그래머가 생전에 의욕적으로 준비하던 아시아독립영화인 네트워크 '플랫폼부산'을 신설하며, '아시아 영화의 창'에 초청된 월드프리미어 영화를 대상으로 '지석상(Kim Jiseok Award)'을 마련, 아시아영화의 발굴과 지원이라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정체성을 이어간다.

한편, 영화제 기간동안에는 올해 부산국제영화를 위해 세계적 감독들과 다양한 국가의 배우들이 부산을 찾을 예정이다. 특히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초청된 영화 '마더'의 감독과 주연배우인 대런 아로노프스키, 제니퍼 로렌스를 비롯해 뉴 커런츠상 심사위원으로 영화제를 찾는 영화감독 올리버 스톤, 대만의 허우 샤오시엔 감독, 이란의 모흐센 마흐말바프, 일본 배우 아오이 유우, 스다 마사키 등 영화제를 빛낼 예정이다.

BUSAN ONE ASIA FESTIVAL 2017



2016 BOF

BOF

아시아 NO.1 한류축제

2017 부산원아시아 페스티벌

10 / 22 ~ 10 / 31

일요일 ~ 화요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영화의전당, 해운대 구남로, 서면놀이마루 등 부산 전역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780-2111
www.bof.or.kr

부산과 한류(韓流)의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세계로 전파해나갈 아시아 대표 문화 콘텐츠 '2017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이 10월 22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부산이 갖고 있는 문화, 관광 인프라와 한류 콘텐츠, 아시아 문화가 만나는 새로운 개념의 한류축제인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은 아시아와 세계의 젊은이들이 만나 K팝, K푸드, K뷰티 등 다양한 장르의 한류 콘텐츠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한류 축제이다. 제1회였던 지난해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에서는 행사기간 중 사드 배치라는 정치적 문제와 태풍, 지진 등 악재 속에서도 미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한류 팬 3만3천 명을 비롯해 관람객 25만 명을 유치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2017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의 포문은 한류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K-POP으로 연다. APINK, ASTRO, B.A.P, GOT7, SF9, 뉴이스트 W, 모모랜드, 블랙핑크, 아이콘, 여자친구, 워너원, 젝스키스 등 K-POP을 이끌었던 최고 라인업의 가수가 출연하는 개막공연은 10월 22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개최된다. 10월 29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리는 '파크콘서트'는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무대로 김태우, 레드벨벳, 백지영, 불빨간 사춘기, 빅톤, 소유미, 알리, 에이리, 유리상자, 정용화, 허스키 브라더스 등이 관객과 만난다. 각 장르별 시대를 대표하는 레전드 스타들의 스페셜 무대인 '레전드 스테이지'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BOF랜드(해운대 구남로)에서 K-POP, Rock&Indie, Hiphop, EDM 등 장르별로 나뉘어 펼쳐진다. 페스티벌 마지막 날인 10월 29일에는 부산의 한류를 알리는 데 기여한 한류 스타들의 시상과 K-POP 스타의 공연으로 꾸며지는 'BOF어워즈'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영화의전당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이날 폐막공연에서는 다이어, 사무



엘, 온앤오프, JBJ, MXM 등이 참여, 축제 마지막의 아쉬움을 달랠다. 이밖에 영화의 전당 하늘연극장에서는 축제기간인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스타와 팬의 만남인 'BOF 팬미팅'이 진행된다.

올해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에서는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부산의 문화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보여주는 'Made in Busan'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2017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를 앞두고 지난 9월 23일 부산시민공원에서 펼쳐진 원아시아플레이시움 '대동을 탐하다'에 이어 10월 24일 농심호텔 내당에서는 부산시무형문화재 '동래항량춤' 예능보유자인 김진홍 선생의 '무위 도가의 짓', 27일 용두산공원 일원에서는 국내외 실력파 DJ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음악 EDM과 부산의 무형문화재인 '동래야류', '수영야류'가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 '야류 EDM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특히 '무위 도가의 짓'은 김진홍 선생이 직접 참여하여 부산의 전통 남성춤과 소리를 전통다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이다.

부산의 맛과 멋을 한류 콘텐츠와 함께 경험하는 다채로운 전시도 만날 수 있다. K뷰티, K패션, K메디 등 K컬처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BOF 그라운드'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서면 놀이마루에서 열린다. 이연복, 최현석, 오세득 등 스타 세프가 1일간 직접 운영하는 데일리부스와 뷰티(메이크업, 헤어, 네일) 체험, 그리고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와 함께하는 의료 서비스체험까지 다양한 체험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 축제기간인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문화체험 스트리트인 'BOF 랜드'로 탈바꿈하는 해운대 구남로에서는 관광·문화 콘텐츠 및 BOF의 안내소 역할을 하게 될 'BOF 홍보관', 다양한 홍보 부스와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 구성된 'BOF 오락실'이 조성되며 부산에서 활동하는 실력있는 뮤지션의 무대공연과 부산을 대표하는 캐릭터의 신나는 길거리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펼쳐진다.

이밖에 축제기간 중에는 한류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공유하는 'BOF 특강', 숨겨진 K-POP 스타를 찾는 BOF만의 특별한 오디션 프로그램 'BOF 커버댄스 대회', 부산 전역에서 BOF를 적극 소개하는 'BOF 플래폼', K-POP 스타들의 상품과 팬들이 직접 제작한 팬덤 상품을 판매하는 프리마켓인 'BOF 스토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program

BOF 개막공연

10월 22일(일) 오후 6:00 아시아드주경기장

BOF Jazz&Busking

10월 22일(일)-31일(화) 오후 2:00 BOF랜드(해운대 구남로)

BOF 오락실

10월 22일(일)-31일(화) 오후 12:00 BOF랜드(해운대 구남로)

BOF 팬미팅

10월 23일(월)-27일(금)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BOF 레전드 스테이지

10월 24일(화)-27일(금) 오후 8:00 BOF 랜드(해운대 구남로)

Made in Busan_부산춤꾼 김진홍의 '무위도가의 짓'

10월 24일(화)-26일(목) 농심호텔

Made in Busan_야류 EDM 페스티벌

10월 27일(금) 오후 4:00 용두산공원 일원

BOF 커버댄스 콘테스트

10월 28일(토) 오후 6:00 BOF랜드(해운대 구남로)

Japan Culture Sound in BOF

10월 28일(토) 오후 1:00,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BOF 파트콘서트

10월 29일(일) 오전 10:00 부산시민공원

BOF 폐막공연

10월 31일(화) 오후 6:00 영화의전당 야외무대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 I 실내악 전용 공연장에 가는 기대



◆ 박진홍 음악평론가

부산문화회관은 올해부터 재단법인으로 거듭나면서 관람객들에게 참신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연장에 있어서도 큰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극장을 제외하고 중극장과 소극장을 모두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특히 소극장은 어린이와 가족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전용 극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난 8월 15일에는 변화의 시작으로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이 객석을 가득 메운 음악 애호가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챔버홀은 기존의 국제회의장을 리모델링한 400여 석의 실내악 전용 공간이다. 국제회의장은 사실 그동안 부산문화회관을 자주 찾는 관객들에게도 생소한 장소였다. 인지도와 효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이 새롭게 실내악 전용 공연장으로 재탄생한 것에 관해 기대와 관심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려 왔다.

이번 개관 페스티벌은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을 음악 애호가들과 연주자, 기획자들에게 알리는 기회였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실내악 공연을 하며 챔버홀이 연주자들의 소리를 어떻게 객석에 전달해 줄 것인지를 시험하는 무대였다. 또한 서로 다른 규모와 악기 편성의 앙상블을 무대 위에 올리면서 무대의 활용도 및 가용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부산문화회관에서는 이번 개관 페스티벌 기간 동안, 프렌치 챔버 오케스트라를 비롯하여 부산 시립교향악단 챔버 앙상블, 금관 앙상블, 플루트 앙상블, 현악 중주 등 다양한 구성의 실내악 단체의 연주를 무대 위에 올렸다. 필자는 15일, 첫 공연으로 준비된 프렌치 챔버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과 17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챔버 앙상블 연주를 관람하였다.

프렌치 챔버 오케스트라는 1989년 창단되어 다양한 실내악 작

품을 프랑스 음악 스타일로 해석하고 연주하여 전 세계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단체이다. 이날은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라장조, 비발디의 사계 중 '봄'과 '여름', 브리튼의 '프랑크 브리지 주제'에 의한 변주곡,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왈츠 2번을 상명대학교 동준모 교수의 지휘로 연주하였다. 이들은 많은 연주를 통해 호흡을 맞추어 온 만큼 안정적이고 편안한 연주를 들려 주었는데, 균형 있는 악기 간 밸런스와 명확한 음정, 그리고 색채감과 리듬감이 느껴지는 연주가 인상적이었다. 비발디의 사계 연주에서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 교수가 협연을 맡았다. 섬세하면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명확하고 표현력 있는 연주로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을 몰입시켰다.

셋 째날 공연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챔버 앙상블이 베토벤, 바르톡, 몬티의 작품을 현악 4중주로 연주하였고, 금관 앙상블이 뮤지컬 캐츠 중 '메모리'와 오즈의 마법사 중 '오버 더 레인보우'를 비롯한 흥겨운 곡들을 연주하였다.

필자는 마지막 곡으로 연주한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다장조'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작품 전반에 걸쳐 앙상블을 이루는 조직력과 균형감이 돋보였으며, 작품의 해석이나 기교적인 면에서도 정상급의 기량을 보여 주어, 오케스트라 연주뿐만 아니라 실내악 연주로도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자주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내악 공연장에서는 연주자와 관객이 가까이 자리함으로써 연주자의 숨소리,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함께 나누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실내악 감상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챔버홀의 개관을 계기로 실내악의 멋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 Ⅱ

연주자, 관객을 만족시키는 클래식 전용홀



◆ 이일세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홀인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의 개관 소식은 많은 연주자들에게 큰 희망과 설렘을 안겨주었다. 마치 커피를 밥그릇에 따라 마시고, 밥을 커피잔에 퍼서 먹듯 우리 연주자들에게 전용홀이 아닌 공간에서의 연주는 청중들은 미처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 챔버 앙상블의 멤버로, 내가 이끄는 앙상블 코스모폴리탄의 리더 및 해설자로, 그리고 원스트링 챔버 오케스트라의 협연자로 챔버홀에 섰던 나는 또 얼마 전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한 음악가의 독주회에 청중으로 챔버홀 객석에 앉게 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챔버홀의 음향을 경험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지휘자가 없는 챔버 앙상블에서, 또는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챔버홀에서 연주하면서 나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상대편 파트 단원들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 매우 놀랐다. 그만큼 예리하고 섬세한 소리까지도 잡아내는 좋은 음향이었다. 반면 이런 예민한 홀에 익숙하지 않은, 다소 볼륨이 큰 소리를 내는 앙상블은 최고 볼륨을 내는 데 있어 다소 조심해야 할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너무 큰소리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음역대의 악기, 예를 들어 바이올린 파트나 피아노의 높은 음을 담당하는 건반이 너무 과격한 소리를 낼 경우 청중들에게 귀를 찌르는 듯한 소리로 방해할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따라서 다소 큰 편성의 앙상블 보다는 실내악 규모의 앙상블이 챔버홀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챔버홀이라는 그 이름처럼 무대의 규모와 음향 보조시설에 있어 훌륭한 실내악을 연주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홀이다.

해설자 또는 연주자로서 경험했던 챔버홀은 편안하면서도 즐거운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다. 일단 객석과 무대와의 앞

은 위치, 그리고 마이크 음향이 매우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고, 무대 가장 앞에 자리하더라도 확보되었던 조명 덕분에 매우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앙상블이었는데도 여태 경험하지 못한 편안한 음향으로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해설자로서는 객석이 한눈에 편안하게 들어와 진행하는 데도 전혀 무리가 없었다. 협연자로 경험한 챔버홀 역시 편안했다. 다만 오케스트라 반주소리가 예민한 홀의 음향 때문에 솔리스트를 덮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 어떤 작은 악기의 소리조차도 세밀하게 잡아내는 음향 효과 때문에 반주에 있어서는 각별히 신경써야 했다. 반주소리가 크기 때문에 솔리스트마저 큰 소리를 낸다면 매우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청중으로서 경험한 챔버홀 또한 매우 훌륭했다. 첼로 독주회였는데, 좋지 않은 홀에서의 독주회는 연주자에게, 그리고 청중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피아노와 첼로의 밸런스가 매우 훌륭했으며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밸런스가 잘 잡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물론 객석에서는 연주자의 숨소리까지도 잘 들을 수 있어 마치 서울의 어느 모 유명 홀을 떠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연주자 대기실은 매우 깨끗하고 좋았지만, 화장실 및 세면대가 함께 있지 않아 관객과 같이 로비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해서 불편했다. 매우 예민한 연주자들은 연주를 하기 전 화장실을 자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음악 앱을 열면 수십 가지의 이퀄라이저 세팅 옵션이 있다. 그렇듯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이 모든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산에 처음 클래식 전용홀이 생기면서 부산문화 발전에 한걸음 크게 내딛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로서 음악가들을 위한 전용홀을 만들어 준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 기념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일 시 9월 13일(수)-12월 31일(일) 화-금요일
오전 11:00,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
(10/1-10/4, 10/10, 월요일 휴관 단 10/9 11시 공연)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전용극장인 '사랑채극장' 개관을 기념해 마련하는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은 EBS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 '로보카 폴리'를 무대화한 작품으로, 경찰차 폴리과 힘센 소방차 로이, 영리한 구급차 엠버, 재빠른 헬리콥터 헬리가 팀을 이룬 구조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뚜뚜뽕뽕 색깔약속!', '땅이 흔들릴 땐? 기억해 세가지!', '병균아 비켜라! 튼튼이가 나가신다!' 등 세가지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지진안전, 생활안전에 대해 알려준다.

경차 폴리와 힘센 소방차 로이, 영리한 구급차 엠버, 재빠른 헬리콥터 헬리가 팀을 이룬 구조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뚜뚜뽕뽕 색깔약속!', '땅이 흔들릴 땐? 기억해 세가지!', '병균아 비켜라! 튼튼이가 나가신다!' 등 세가지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지진안전, 생활안전에 대해 알려준다.

전문예술법인 (사)이지무스오페라단
제35회 정기공연
Opera in Concert 리골레토

일 시 10월 10일-11일 화-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예매시 20% 할인)
문의 (사)이지무스오페라단 010-8520-4649



지난 2002년 창단된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오페라 저변확대에 앞장서 온 (사)이지무스오페라단이 마련하는 Opera in Concert '리골레토'.

-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는 초기 작품인 '나부코', '에르나니'로 이탈리아 국내에서의 명성을 확립한 베르디가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게 된 작품으로, 방랑한 귀족 만토바 공작의 성을 배경으로, 귀족들의 광대였던 리골레토의 처절한 비극을 그린 오페라다.
- 예술총감독/손우
- 지휘/윤상운 ● 연출/해설/정진규
- 연주/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출연/테너 임성규, 양승엽, 소프라노 양근화, 왕기현, 바리톤 윤공원, 안세빈,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손혜은, 베이스 이철훈, 박상진, 김용덕

김민정 피아노 독주회

일 시 10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초대)
문의 김민정 070-8261-0307



부산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민정 독주회.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예비학교를 졸업하고 보스턴대학교에서 학사, 석사과정, 노스텍사스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한 김민정은 그동안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해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상트 페테르부르크 방송오케스트라, 울산대학교 챔버오케스트라, 카펠라 이스트로폴리타나, 움첸버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우수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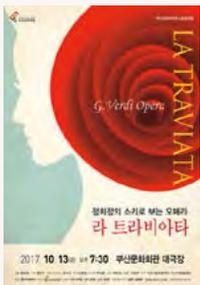
현재 경상대학교, 경남대학교, 부산예고에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김민정은 이번 무대에서 클래식 음악에서 'The Great 3B's'라 불리는 바흐, 베토벤, 브람스의 깊이 있는 독일 전통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바흐/반음계적 환상곡과 푸가 라단조 BWV 903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월광' 작품 27 제2번
브람스/파가니니 변주곡 작품 35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정희정의 소리로 보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일 시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1세기 해양문화도시 부산을 대표할 부산오페라하우스 성공 건립을 위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정희정의 소리로 보는 오페라-라 트라비아타'. 오페라 갈라콘서트와 성우 드라마의 만남을 통해 오페라를 새롭게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무대로, 정희정 아나운서의 연출과 진행, 목포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김현수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의 연주, 소프라노 오미선, 테너 신동원, 바리톤 박대용과 성우 이선, 유호찬, 배한성이 각각 비올레타, 알프레도, 제르몽 역을 맡아 베르디의 아름다운 음악과 연기를 접목시킨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선보인다.

제20회 오륙도 평화음악회

일 시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시남구문화원 010-9287-6350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와 천혜의 주변 환경을 널리 알리고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누구나 함께 즐기며 화합하는 제20회 오륙도 평화음악회. 부산남구문화원 음악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무대는 부산지역 성악가들과 PF 합창단, 무지카비바가 출연, 국내외 가곡 및 유명 오페라 아리아 등 우리 귀에 친숙한 곡을 들려준다.

- 출연/소프라노 박미경, 왕기현, 테너 강학운, 서명보, 바리톤 하병욱, 무지카 비바(바이올린 박경희, 첼로 전명희, 피아노 주은정), PF 합창단(단장 배용, 지휘 강학운, 반주 손혜진)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

일 시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대한민국 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과 일본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미도리가 함께하는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

지난 1956년 창단된 후 올해로 61주년을 맞는 KBS교향악단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을 통해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들과 만나오고 있다. 음악감독이자 상임지휘자인 요엘 레비가 지휘하고 '바이올린 신동'으로 한 시대 풍미하며 2세기를 이끌 바이올리니스트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미도리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현대미트의 '폰 베버 주제에 의한 교향적 변용'을 시작으로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작품 47',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를 들려준다.

서예나 귀국 첼로 독주회

일 시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7:0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의 the Yoon 010-9025-2012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도미, 메네스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올해 귀국한 첼리스트 서예나 독주회.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수단원을 역임한 바 있는 서예나는 이번 무대에서 가을의 서정을

느낄 수 있는 바흐, 헨데미트, 브람스의 곡들을 비롯해 피아니스트 맹준관, 바이올리니스트 김나영과 함께 피아졸라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를 앙상블 무대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바흐/첼로모음곡 제3번 다장조 BWV 1039
 피아졸라/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헨데미트/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마장조 작품 25 제3번
 브람스/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제2번 바장조 작품 99

- 피아노/맹준관
- 바이올린/김나영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

일 시 10월 15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010-4555-1470



광남초등학교 재학생, 졸업생을 비롯해 지도강사 등 광남 가족들로 구성된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

지난 1999년 광남초등학교 관현악부로 출발한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는 2007년 지금의 오케스트라 형태로 재구성된 이래 매년 정기연주회와 유진박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 부산KBS 동요대회, 부산청소년예술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는 타학교 악기 지원, 요양원 방문봉사, 수재민 이웃돕기 등 음악을 통한 이웃사랑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1부 오페라 음악에 이어 2부에서는 낭만파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들려준다.

김주영 귀국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 시 10월 15일 일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미국 인디애나음대 학사, 줄리어드음대 석사, 맨하탄음대 최고연주자 및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교 티처스 칼리지에 재학 중 귀국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주영 독주회. 김주영은 그동안 United Korean Orchestra 악장, 부산심포니에타 수석, 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객원 단원, 화음챔버오케스트라 단원, 이태리 Spoleto Festival Orchestra 부악장, 독일 Orchestral Academy Schleswig-Holstein Music Festival 악장, 인디애나 주립대학 음대 Concert Orchestra, Symphony Orchestra, University Orchestra 악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베토벤/바이올린소나타 제8번 작품 30 제3번
 바르톡/바이올린랩스디 제1번 Sz.87
 쇤베르크/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타지 작품 47
 브람스/바이올린소나타 제3번 작품 108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0회 부산합창제

일 시 10월 16일(월)-18일(수)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5~6



부산 합창인구의 저변확대와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공유하기 위해 부산시립합창단이 매년 마련해온 아마추어 합창단들의 축제 '제30회 부산합창제'. 지난 1985년 시작된 후 올해로 29회를 맞는 부산합창제는 그동안 다양한 합창단을 발굴, 서로 교류하며 공연의 장을 펼침으로써 지역 합창음악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부산합창제는 매년 참가단체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올해는 역대 합창제로서는 최다 참가팀인 41개팀이 참가, 합창으로 하나되는 화합과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15일 참가팀

경남여고 수경합창단(지휘/조익래, 반주/김은실)
 온합창단(지휘/이은정, 반주/남현숙)
 목련합창단(지휘/오동주, 반주/하신혜)
 부산광역시 공무원합창단 B-STAr(지휘/오동주, 반주/김경미)
 The 울림 콰이어(지휘/전상철, 반주/최지선)
 BTN 합창단(지휘/추현철, 반주/구화진)
 남구 시니어 합창단(지휘/박성수, 반주/김미경)
 부산 여성합창단(지휘/김성복, 반주/전미리)
 브라보 아버지합창단(지휘/이성훈, 반주/구화진),
 CBS 여성성가대(지휘/이외균, 반주/김은경)
 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지휘/강학윤, 반주/손혜진)
 루보체 레이디스 싱어즈(지휘/권영기, 반주/강지원)
 부산 갈매합창단(지휘/구영림, 반주/김다연)
 부경 한소리합창단(지휘/조성빈, 반주/정은희)
 글로리 콰이어(지휘/이정철, 반주/박성미, 이경미)
 부산시립합창단(지휘/전진)

16일 참가팀

경현 Happy Choir(지휘/이외균, 반주/김은경)
 해운대 소리 합창단(지휘/김진영, 반주/김주영)
 피오레 여성합창단(지휘/김철수, 반주/조미영)
 벨라보체 합창단(지휘/조현수, 반주/이현주)
 무진정사 푸른합창단 & 세존사 대불합창단(지휘/이순희, 반주/박미용)
 예그린 합창단(지휘/손욱, 반주/이영숙)
 위드코러스 합창단(지휘/김성숙, 반주/임향)
 예그리나 합창단(지휘/강종철, 반주/이현숙)

원음합창단(지휘/이은정, 반주/조은지)
 부산 중구 시니어 코러스(지휘/이은정, 반주/조은지)
 은파합창단(지휘/이홍길, 반주/엄혜경)
 부산 YWCA 합창단(지휘/김성규, 반주/김예진)
 선텀합창단(지휘/이철성, 반주/박재나)
 에버그린 코러스(지휘/이정철, 반주/이경미)
 진주여고 동백합창단(지휘/이정철, 반주/이경미)
 부산시립합창단(지휘/전진)

18일 참가팀

신라 시니어스 콰이어(지휘/이은정, 반주/남현숙)
 부산 로즈 콰이어(지휘/정승원, 반주/김미)
 정관 여성 햇빛 합창단(지휘/권영기, 반주/전미리)
 한마음부산 합창단(지휘/정필운, 반주/윤재웅)
 현대 나르시어 합창단(지휘/이경선, 반주/엄혜경)
 부산진구 남성합창단(지휘/강경원, 반주/주은정)
 해운대 NH 여성합창단(지휘/김연주, 반주/김명조)
 부산 하모니 합창단(지휘/김강규, 반주/김민선)
 금성 하모니 합창단(지휘/손욱, 반주/김주리)
 뫼트 보이스 콰이어(지휘/이진우, 반주/이찬우)
 마린 뮤즈 콰이어(지휘/김태호, 반주/이승윤)
 부산시립합창단(지휘/전진)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박유미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10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귀국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음악이론 석사 및 서양음악학 박사 과정을 마친 피아니스트 박유미 독주회.

그동안 수차례 독주회 및 실내악, 협연무대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박유미는 최근에는 매년 렉처가 있는 리사이틀을 통해 청중과의 소통에 힘써왔다. 일신문화재단이 주관하는 'New Music Compact for the Piano' 연주회 시리즈를 7번째 맡아오며 20세기의 새로운 피아노 레퍼토리를 발굴하고 연주하는 데 주력해온 박유미는 국제음악심리학회(CMPC)에서 2차례 논문 발표를 하는 등 학구적인 연주자로 알려져 있다. 박유미는 '테마양상블' 단원으로도 17번째 활동 중이며 현재 영남대학교 겸임교수, 서울대, 부산대 출강하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작품 27 제2번
히나스테라/피아노소나타 제1번 작품 22 등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I
금내 & 부산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일 시 10월 19일 목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불멸의 악성(樂聖)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10월 19일 베토벤 교향곡 제1번을 시작으로 매월 총 10회에 걸쳐 내년 6월까지 9곡의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만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베토벤 교향곡과 더불어 낭만파 시대의 대표적인 기악 협주곡을 실력있는 연주자들의 협연으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이 자랑하는 지휘자 금내새와 이번 무대를 위해 새롭게 구성된 부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BFO: Busan Festival Orchestra)가 함께 하면서 관객들에게 보다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2017-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의 화려한 막을 여는 이번 첫 무대에서는 금내새 지휘, 첼리스트 심준호 협연, 부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베토벤 '교향곡 제1번 작품 21'과 드보르작 '첼로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를 들려준다.

BTN 붓다회 1주년 기념

BTN불교TV 남성중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10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BTN불교TV 남성중창단 010-2070-7727



성악을 전공한 부산, 경남지역의 사찰 지휘자로 활동하는 음악가들로 결성된 BTN불교TV 남성중창단 정기연주회.

BTN불교TV 남성중창단은 지난 2014년 1월 결성된 후 관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무대를 기획, 부처님의 법을 음성으로 전하는 찬불가 보급을 통해 포교 활성화와 불교음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불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100만 방송포교사의 신행문화를 선도해 가고 있는 BTN 붓다회 창립 1주년을 기념해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찬불가를 비롯한 다양한 레퍼토리로 남성중창의 매력을 전해준다.

베이스 바리톤 박순기 귀국독창회

일 시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박순기 010-9204-5854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김해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다 호주로 유학, University of Sydney, Conservatorium of Music을 졸업하고 호주에서 활동하다 올해 귀국한 베이스 바리톤 박순기 독창회.

2015년 Sydney, Hawksbury, Orange, Shoalhaven에서 1위, John Carden Award 3위 입상 등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박순기는 호주 유학 시절 국립오페라단인 Opera Australia General Audition에 발탁되어 활동하다 2015년 Percilio Opera의 Young Artist로 다양한 무대에 서며 오페라 주역 및 솔로이스트로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브리튼, 드뷔시, 구노, 마르첼로, 모차르트, 토스티, 슈베르트, 슈만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 한국가곡 등을 들려준다.

● 피아노/서현경

강수이 귀국 비올라 리사이틀

일 시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깊이 있는 해석과 탄탄한 연주가 돋보이는 비올리스트 강수이 귀국 독주회.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미,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5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강수이는 재학시절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을 비롯해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아시아 유스 오케스트라 멤버로 아시아 투어 연주, 차이콥스키 탄생 170주년 기념 차이콥스키 뮤직 페스티벌 초청연주, 뉴욕 카네기홀 초청연주, 링컨센터 초청연주 등 오케스트라와 실내악, 솔리스트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음악성을 인정받으며 비올리스트로서의 입지를 쌓아온 강수이는 귀국 후 서울오케스트라 부수석을 역임했으며 현재 'Bach da Gamba Sonata' 전곡 연주회를 앞두고 있다.

● 피아노/박정희

제55회 부산무용예술제

일 시 10월 22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무용협회 632-5116



종합예술의 대항연 제55회 부산예술제 일환으로 열리는 부산무용협회 '제55회 부산무용예술제'.

박근하 무용단, 강미리 할 무용단, KSU Ballet, 김은주 정크무브먼트 등 부산지역 4개 단체와 일본 후쿠오카, 몽골 우란바트르 등 해외자매도시 2개 초청팀이 출연. 우리의 전통무용에서부터 전통 창작 무, 발레, 현대무용 등 다양한 춤사위를 선보인다.

작품

박근하 무용단 '교방굿거리춤'
강미리 할 무용단 '작별을 고하다'
KSU Ballet 'Flower Festival'
김은주 정크무브먼트 '나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제10회 테너 주종식, 바리톤 최성규 듀오콘서트

일 시 10월 22일 일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우리아트 920-9545



이탈리아 L'Aquila 국립음악원, Pescara 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주종식은 이탈리아 로마 문화원 'I solisti Roma' 단원, Music Association 'AMICI' 단원으로 활동하며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 캐나다, 한국에서 오페라와 수백회 이상의 콘서트에 출연했으며 현재 Friday Morning Music Club Vocal Solist, Metropolitan Women's Choir 상임지휘자, 워싱턴 감리교회 음악감독으로 있다. 이탈리아 C.S.M. Accademia, Arena Accademia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부수석단원으로 있는 최성규는 그동안 2차례 독창회를 비롯 오페라 주역 및 오라토리오 독창자, MBC 목요음악회, 슈베르트 서거 200주년 기념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부산예술고등학교 강사, 신라대학교 외래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김민정 플루트 독주회

일 시 10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김민정 010-3918-8442



현재 창원시립교향악단 플루트 부수석, 대구 Kalos flute 앙상블 리더로 활동중인 플루티스트 김민정 독주회. 계명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와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Diplom, Konzertexamen 과정을 졸업한 김민정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을 역임했으며 2001년 폴란드대사 취임식 초청 연주, 독일 드레스덴 Philinz Schloss Konzert 솔로 연주, 드레스덴 Hochschulorchestra Flute 수석 연주, 루벤스타인 피아노 국제콩쿠르 플루트 수석 연주,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개교 150주년 기념음악회 솔로 연주, 2016년 Kalos flute 앙상블 10주년 기념음악회 협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바흐/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마장조 Bwv 1035
 라이네케/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윤디네' 작품 167 등
 ● 피아노/이은정 ● 첼로/김효진

2017 바리톤 하병욱 독창회

일 시 10월 23일 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우리아트 950-6564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태리 파르마 국립음악원, 오르페오 아카데미, 도나젠티 아카데미 졸업생 졸업하고 현재 동서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리톤 하병욱 독창회. 하병욱은 이태리 리나노 삼비아도로 국제콩쿠르 2위, 이태리 안젤리카 카탈라니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고 그동안 오페라 '사랑의 묘약', '팔리아지', '피가로의 결혼', '라보엠', '춘희', '라미요 프리츠' 등 수 편의 오페라에 주역으로 출연했으며 오라토리오 '메시아', '천지창조', '스타바트 마테르', '분노의 물결' 등 다수의 오라토리오에서 솔리스트로 협연한 바 있다.

프로그램

벨리니/가라. 오 행운의 장미여
 차이콥스키/그리움을 이는 이만인
 뒤파르크/여로에의 초대
 미치 리/뮤지컬 '맨 오브 라 만차' 중 '이룰 수 없는 꿈'
 이원주/항목
 윤용하/보라발 등 수곡
 ● 피아노/석미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독도의 날 기념 독도지킴이 서경덕 교수와 함께하는 독도 네 번째 이야기

일 시 10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0, 3170~1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를 소재로 한 창작곡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려주는 독도의 날 기념 특별연주회 '독도지킴이 서경덕 교수와 함께하는 독도 네 번째 이야기'. 올해로 4회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수석지휘자 이건룡이 이끄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해 부산서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 채병석), 부산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 김태경), 부산남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 김주관)과 해군작전사령부, 샌드아트스트 김미현이 출연. 독도를 소재로 한 시에 작곡가 신진수, 류지원, 장운선, 정상화, 김태호가 곡을 붙인 창작위촉곡들로 독도의 의미를 되새긴다. '독도지킴이'로 활동해온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특별출연. 나의 사랑 독도야라는 주제로 관객과 함께 나누며 독도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아시아 민족음악의 밤

일 시 10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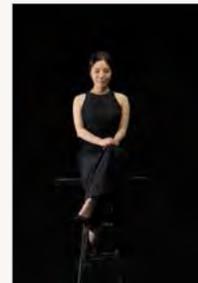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고 리코더 연주자 권호진,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우, 양금 연주자 윤은화, 비파 연주자 조양, 소리꾼 박성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팀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악관현악을 비롯한 다양한 협주곡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조원행/국악관현악 '대지 II'
 김선재/국악관현악 '비손'
 박위철(면곡)/단소협주곡 '초소의 봄'
 사라사테/바이올린 협주곡 '지고이네르바이젠'
 흥정희/양금협주곡 '바람의 노래'
 강봉천/25현가야금협주곡 '절영의 전설'
 ● 지휘/이정필(부산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권호진(리코더), 이현우(바이올린), 윤은화(양금), 조양(비파), 박성희(소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팀

김정화 피아노 리사이틀 Moon-struck 달빛에 홀리다

일 시 10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현재 (사)민족음악학회 연구원으로 연주자뿐만 아니라 전문 음악 코디네이터로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정화 독주회.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과 미국 보스턴 콘서바토리를 졸업하고 동야대학교 음악문화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김정화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솔로리스트뿐만 아니라 실내악 연주기로도 꾸준히 활동하면서 교육자, 기획자, 음악 해설가 및 진행자 등 관객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정화는 2016년부터 흰여울문화마을 'Artis in Residence'로 선정되어 활동 중이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아,어머님께 말씀드리죠(반짝 반짝 작은 별)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K.265
 베토벤/환상곡풍이 소나타 작품 27 제2번
 드뷔시/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 프렐류드, 월광 등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웰빙콘서트 시즌 2**

일 시 10월 26일 목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해 부산문화회관이 2017년 마련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웰빙콘서트 시즌 2' 두 번째 무대.

'음악계의 과몰'이라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운범의 깊이있는 해석,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김해시립합창단 지휘자 박지운의 지휘, 소프라노 류진교, 테너 이동명, 바리톤 김종표의 협연으로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레온카발로 '팔리아치', 베르디 '팔스타프', 푸치니 '나비부인'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뛰어난 말솜씨와 해박한 지식으로 관객들을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이끌 조운범은 현재 라디오 '노홍철의 굿모닝 FM'의 클래식 음악 코너 진행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제28회 이건음악회
**모스크바 스투덴스키 수도원
합창단 내한공연**

일 시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무료(10월 8일까지 www.eagonblog.com를 통해 입장권 신청가능)
문 의 (주)이건창호 032-760-0898



러시아를 대표하는 합창단이자 600년이 넘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모스크바 스투덴스키 수도원 합창단' 내한 공연으로 마련되는 제28회 이건음악회. 이건음악회는 '메세나'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지난 1990년, 체코 아카데미 목관5중주단 초청공연을 시작으로 매년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실력파 해외 뮤지션을 발굴하여 수준 높은 무대를 열어오고 있다. 부산을 처음 찾는 모스크바 스투덴스키 수도원 합창단은 수많은 시대의 변화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음악의 전통과 감동을 지켜온 합창단으로, 쉽게 만날 수 없는 동방정교회의 고대 성가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통민요,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지난 수 세기 동안 러시아에서 사랑받아온 음악들을 웅장한 화음을 통해 들려준다.

소프라노 김성은 초청독창회

일 시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부산문화 1600-1803



풍부한 음색과 맑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유럽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프라노 김성은 초청 독창회. 스페인 비냐스 국제콩쿠르 우승 및 특별상, 플라시도 도밍고 국제콩쿠르 대상, 이태리 토티 달 몬테 국제콩쿠르 우승, 스페인 아라갈 국제콩쿠르 우승 등 국제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세계무대에서 주목받은 김성은 이태리 베로나 아레나극장에서 동양인 최초로 오페라 '리골레토'의 타이틀역인 '질다'역을 열연하며 현지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으며, 그동안 흥해경, 조수미의 뒤를 잇는 한국의 대표 소프라노라는 호평과 함께 유럽의 주요 오페라극장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 피아노/이영민
- 특별출연/바리톤 전기홍
- 해설/김도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II
'비엔나 챔버 플레이어즈'**

일 시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실력파 해외 실내악단들이 전하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실내악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2017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두 번째 주인공인 비엔나 챔버 플레이어즈의 무대. 비엔나를 대표하는 빈 국립 포크스오페라의 약장민 수석단원들로 구성된 6중주 앙상블로, 매년 300회 이상의 공연을 소화해내는 특급 오케스트라의 멤버답게 뛰어난 음악성과 정교한 팀워크, 다양한 레퍼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등을 그들만의 색채로 편곡한 연주곡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음악을 대표하는 란너의 '왈츠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페르페 톰빌레' 등 국내 무대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곡들로 꾸며진다.

제2회 UM챔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 의 예술기획 010-4909-7444



지난 2014년 바로크에서부터 현 시대의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구, 연주하기 위해 결성된 UM 챔버오케스트라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UM 챔버오케스트라, 울산영재청소년오케스트라, 울산중구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는 지휘자 박광식이 지휘하고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시 챔버오케스트라 인 '브라이트 보우즈'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아 쿠지나의 협연으로, 보이치예코 킬라르, 블라디미르 마르티노프 등 러시아 현대 작곡가들의 작품과 모차르트 교향곡 제29번을 들려준다.

아트뱅크코리아 기획공연
**브람스 서거 120주년 기념음악회 I
'브람스의 눈물'**

일 시 10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브람스 서거 120주년을 기리는 기념음악회 '브람스의 눈물' 첫번째 무대. 서울,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고의 연주자들이 함께 하는 무대로, 현악4중주, 현악6중주, 피아노5중주, 바이올린 소나타, 혼트리오, 클라리넷5중주 등 브람스의 실내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 프로그램**
브람스/현악4중주 제1번 다단조 작품 51 제1번
브람스/현악6중주 제1번 내림나장조 작품 8
브람스/피아노4중주 바단조 작품 34
● 연주/KCO 스트링 콰르텟, 피아니스트 박정희, 비올리스트 유리슬, 첼리스트 문주원

2017 제9회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The Classic-아시아의 창(窓) 부산

일 시 10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무료(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
www.knn.co.kr에서 초대권 신청)
문의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850-9566, 9568



예술로 소통하는 아시아의 아이콘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BWPO)가 매년 마련하는 'The Classic-아시아의 창(窓) 부산' 2017년 무대.

올해로 9회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 의 메카 베를린필하모니홀, 빈 무지크페라인 황금홀, 동경예술극장, 프라하 스페타나홀 등 세계적인 연주홀에서 한국 지휘자를 각인시킨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지휘하고 현재 프랑스 Banque Populaire 재단 아티스트, 파리국립 오페라하우스 아카데미 단원으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의 협연으로는 작곡가 하순봉의 '2017 BWPO 아시아의 창 서곡'을 시작으로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47'을 비롯 위대한 예술가의 초상을 장엄한 사운드와 화려한 선율로 펼쳐낸 R.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영웅의 생애'를 들려

준다.
부산이 문화적으로 아시아의 창(窓)이 되길 바라며 지난 2009년 부산 경남 출신의 연주자들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지역문화 예술발전과 문화의 저변확대에 앞장서왔으며, 앞으로는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과 국내 음악인들의 교류를 통해 우수한 음악적 역량을 국내 외 무대에 널리 알려나갈 예정이다.

프로그램

- 하순봉/2017 BWPO 아시아의 창 서곡
시벨리우스/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47
R. 슈트라우스/교향시 '영웅의 생애' 작품 40
- 예술감독, 지휘/오충근
 - 연주/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 작곡/하순봉



김혜진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 시 10월 31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김혜진 010-4568-3370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 부산신포니에타 부수석, 현악사중주 '클레다(CLEDA)' 리더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진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김혜진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하고 제22회 부산

신인음악회 최우수연주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가을의 서정에 어울리는 브람스, 포레의 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프로그램

- 브람스/스케초 다단조 작품 4
브람스/바이올린소나타 제1번 사장조 작품 78 '비의 노래'
포레/바이올린소나타 제1번 가장조 작품 13
● 피아노/박은식(전남대학교 교수)

피아니스트 백혜선 리사이틀 헌신(獻身), Beyond playing

일 시 10월 3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아트메니지먼트 740-5833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이 2018-2019 시즌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전곡 연주'를 앞두고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헌신(獻身), Beyond playing'.

화려한 스케일, 호쾌한 타건과 기교를 뛰어난 서정성을 표현하는 연주로 매회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피아니스트 백혜선은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1위 없는 3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은상, 메릴랜드 윌리엄 카멜 국제콩쿠르 1위, 영국 리즈국제콩쿠르 등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 입상하면서 세계 무대의 주목을 받았으며 런던심포니, 보스톤심포니, 보스톤필하모닉, 워싱턴 내셔널심포니, 러시아 내셔널오케스트라, 모스크바필하모닉, 뮌헨필하모닉, 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 버밍햄심포니, NHK심포니, 도쿄필하모닉, 뉴저지필하모닉, 오사카필하모닉, 아

르헨티나 국립교향악단등과 협연무대를 갖는 전 세계무대에서 활동해오고 있다.
일본 사이타마현 문화예술재단이 선정한 현존하는 '세계 100대 피아니스트'에 선정된 바 있는 백혜선은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부산국제음악제 예술감독으로 있으며 미국 클리블랜드음악원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좌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피아노 음악 최고의 걸작으로 일컬어지는 베토벤의 '디아벨리 변주곡'과 리스트 곡 중에서도 테크닉적으로 가장 난해한 곡이자 그 당시 피아노라는 악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어렵게 쓰여진 곡으로 평가받는 리스트의 '돈 조바니의 회상' 등 피아니스트 백혜선의 뜨거운 열정과 서정어린 연주를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 베토벤/룬도 다장조
베토벤/디아벨리변주곡
리스트/돈 조바니의 회상
리스트/페트르카 소네트
리스트/먹구름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III '일본 텔레만 실내악단'

일 시 11월 1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 1963년 창단된 후 바로크시대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과 유려한 연주로 국내외 무대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온 텔레만 실내악단은 이번 공연에서 국내에서는 생소한 바로크시대 음악을 중심 레퍼토리로 바흐의 '하프시코드 협주곡', 비발디

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을 비롯해 올해 서거 250주기를 맞으며 국내외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텔레만의 명곡들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음악이 만들어지던 시대에 사용했던 악기와 연주방식을 최대한 사용, 연주함으로써 시대악기가 가진 이색적인 음색과 깊이를 느낄 수 있다.

또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예벨의 협연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음악을 통한 교감의 무대가 펼쳐진다.

음악 | Music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4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11일(제622회) 신시아 피아노 트리오와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바이올리니스트 손은혜, 첼리스트 김지혜, 피아니스트 김은정으로 구성된 신시아 피아노 트리오와 바이올리니스트 유주연, 비올리스트 김가인,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의 무대로 꾸며지는 실내악의 밤.

18일(제623회) 정다희, 유희정 듀오 리사이틀

(사)더 솔로이스츠, The Blossom 멤버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정다희와 다양한 음악활동과 후진 양성에 힘써고 있는 피아니스트 유희정의 듀오 무대.

25일(제624회) 앙코르 '버섯피자'



19세기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네 남녀의 얽히고설켜 애정 행각을 재미있게 그린 셰이무어 바랍의 오페라 '버섯피자'.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장은영, 강소영, 테너곽성민, 베이스 박상진이 출연, 유쾌한 오페라의 세계로 안내한다.

● 피아노/박소미

정주연 플루트 리사이틀

클래식, 탱고, 재즈의 선율을따라서

일 시 10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미국 맨하탄음대 학사과정과 피츠버그 듀케인대학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KNN방송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정주연 독주회.

지난 2010년 귀국 후 매년 독주회와 함께 부산 시립교향악단 송년음악

회, 베르디 탄생 200주년 오페라 '나부코', 오페라 '토스카'를 오페라단 & 로마 공동제작, 부산시립합창단 '메시아', 고성현 & Opera Stars 등 다양한 무대에서 온 정주연은 현재 거제여중 금비 오케스트라 지도강사, 부산교육학생문화회관 오케스트라 지도강사, 부산예술고등학교 실기심사위원, 동의대학교 예술종합콘서트바토리,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강사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피아졸라/탱고 연습곡 제3번

플랑크/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FP 164 등

2017 폴리포니기타듀오 정기연주회

일 시 10월 11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서승완 010-5198-0074



독주로 표현하기 힘든 좀더 입체적인 음악적 표현을 추구하고자 기타리스트 서승완, 김경태로 구성된 폴리포니기타듀오의 2017년 정기연주회.

지난 2005년 결성된 후 그동안 클래식에서부터 영화음악, 국악, 남미무곡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연주로, 각종 기타페스티벌 및 방송국 초청연주, 세계 각국의 국제음악제 프리지공연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폴리포니기타듀오는 2012년과 2015년, 2016년 통영 윤이상국제음악제 프리지에서 'Rising Star'로 세차레나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권은영 교수의 거문고 협연으로 국악인 '정음사'와 서양음악인 포레의 '파반느'를 3중주로 연주, 국악기와 서양악기의 색다른 어울림을 선보인다.

소프라노 백성희 리사이틀

일 시 10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백성희 010-9324-4310



현재 김해시립합창단, The Music in Choir 단원, 아이노스 중창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소프라노 백성희 독창회.

신라대학교 음악학과와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체코 Brno Konzervator Masterclass, 오스트리아 빈 Theodore Corsi Masterclass, Gottfried Homik Masterclass 등에서 디플롬을 취득한 백성희는 그동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비롯해 오라토리오 솔로리스트, 창원오페라단 갈라콘서트, 국제신문 주최 한빛의 유콘서트, 신년 성가의 밤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헨델 파이스렐로, 아르디티, J.맥스, 김동진, 조두남, 이흥렬, 조성은, 박현주 등 국내외 가곡과 모차르트, 도니체티의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특별출연/아이노스 중창단

● 피아노/김신정

부산경찰청 음악동아리 '지음(知音)' 제3회 정기연주회

일 시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무료

문의 지음 총무 강승훈 010-3198-5811



시민들에게 문화적 감성으로 소통하며 다가가는 21C 문화의 시대에 걸맞는 문화경찰청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 첫발을 내딛은 부산경찰청 음악동아리 '지음(知音)'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바이올린, 플루트, 클라리넷에서부터 색소폰, 통기타, 락밴드, 밸리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지닌 경찰관들로 구성된 '지음(知音)'은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작은음악회, 부산의료원 통사모와 환우들을 위한 조인 콘서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음악사랑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오프닝무대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밸리댄스, 클래식연주, 트로트, 통기타연주, 남성독창, 색소폰연주, 밴드공연 등 다양한 무대를 선사한다.

● 회장/정창욱 ● 사회/이순용, 김정희

박승훈 Trumpet & Flugelhorn 독주회

일 시 10월 15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박승훈 010-2332-3627



영남대학교 음악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미국 뉴욕시립대학교인 퀸즈 칼리지-아콘코 플랜드 음악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트럼펫터 박승훈 독주회.

퀸즈 칼리지 재학당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트럼펫의 고악기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면서 클라리노(Clarino) 클래스를 이수하기도 한 박승훈은 미국 유학중 퀸즈 칼리지 오케스트라·심포니밴드, New York Korean Symphony Orchestra, Queens Orchestra, The Brass Trio, Max Brass Quintet 단원 및 객원단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연주 경력을 쌓았다. 박승훈은 현재 동의대학교 예술영재원, 부산예술중고등학교, 인제대학교, 영남대학교에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제30회 에듀필하모니 정기연주회

일 시 10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신현미 010-2586-1211



부산교육대학교 박종원 교수를 주축으로 음악을 사랑하고 악기들이 주는 하모니의 매력에 빠진 교사들로 창단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인 '에듀필하모니'의 정기연주회. 지난 1999년 창단한 후 매년 2차례 정기연주회를 가져온 에듀필하모니는 봄 연주회에서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공연, 소품 등 친근한 무대로, 가을 연주회는 교향곡, 협주곡 등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 공연을 선보여왔다.

부산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에듀필하모니오케스트라 지휘자 김지세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1회 정기연주회부터 29회까지 연주된 곡들 중 단원들이나 관객들로부터 호응이 좋았던 작품들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슈트라우스/오페레타 '박쥐' 서곡
 차이콥스키 '호두까기인형' 모음곡 등
 ● 지휘/김지세

the 20th MiOT 2017 제 20주년 기념음악회 우리 이곳에 Here We Are

일 시 10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강순희 010-6566-1584



1997년 작곡가 강순희를 주축으로 현대음악을 연구하고 알리는 MiOT(Music in Our Time·우리시대음악)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음악회. 창단 후 '현대음악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 다양한 음악을 편견 없이, 심도 있게 접근하고 창작 음악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로 꾸준히 한길을 걸어온 MiOT는 이번 무대에서 '우리 이곳에 Here We Are'라는 주제로 지난 서양음악 발달사 600년의 끝자락에 와 있는 이 시대 음악의 존재와 성격, 그리고 핵심을 이해하고 조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성악곡이었던 모테트(Motet)와 마드리갈(Madrigal)을 시작으로 1974년 독일 유학길에 오

른 이후 현재에 이르기 까지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박-파안 영희(Pagh-paan Youngh)의 플루트를 위한 '드라이잠-노래, 1974', 한국전자음악협회 설립회장,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SICMF 회장을 역임하고 홍콩, 일본 등 수많은 컴퓨터 음악제에 참가 해온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황성호 교수의 2017 위촉곡 '테너와 베이스 트롬본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Moments', MiOT를 창립이후 예술감독으로 활동중인 작곡가 강순희의 'Sound from Innermost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 1972/2017' 그리고 베토벤 '현악4중주 단조 작품 18'를 들려준다.

특히 창립 20주년을 맞아 이번 무대에서는 역량이 있는 1회 수상자로 선정된 작곡가 박성익의 젊은 작곡가 발굴을 위해 마련한 'MiOT Award'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 예술감독/강순희
- 연주/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소프라노 김태연, 박소정, 엘토 강미래, 테너 김지현, 바리톤 이기환), 장예지(플루트), KNUA 트롬본 앙상블(지휘 이장성, 트럼본 김인수, 신윤택, 피아노 한민정), 부산현대음악앙상블(클라리넷 황남용, 첼로 광대희, 피아노 김진희), 비르투오즈 현악사중주(바이올린 백재진, 김도경, 비올라 김은진, 첼로 이일세)

부산콘서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10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전석 만원
문의 우리아트 920-9545



지난 2004년 창단한 경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모체가 되어 뜻을 같이 하는 부산지역 전문음악인들로 2007년 새롭게 결성된 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매년 2차례 이상 정기연주회와 수 십회 특별연주회를 통해 관객과 만나는 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다수의 교류음악회와 지휘자 학술세미나 및 연주회 등을 개최, 문화교류를 통한 세계음악의 흐름과 새로운 작품의 소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지휘자 오정록이 지휘하고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피아니스트 김선영, 부산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 바이올린 단원으로 활동중인 백양초등학교 6학년 김세은이 협연무대를 갖는다.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 바로크 음악의 향연

일 시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10/13일까지 선착순 문자 예약)
문의 이성훈 010-5256-8336



바로크시대를 중심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통 합창곡을 선사해온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이 한국을 대표하는 바로크 전문 연주단체인 카메라 안티과 서울과 함께하는 '바로크 음악의 향연'.

지난 2009년 창단된 후 2013년 부산광역시 전문 예술단체로 지정된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은 2015년 제31회 일본 다카라츠마 국제챔버 합창콩쿠르에서 르네상스&바로크, 현대음악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2017년 정기연주회에서는 비발디의 협주곡 '사계'를 종교음악으로 편곡한 미셀 코레트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네' 한국초연을 비롯해 바흐, 헨델, 비발디 등 바로크 대가들의 주옥같은 명곡을 들려준다.

- 해설/곽근수 ● 지휘/이성훈

2017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 제28회 정기연주회

일 시 10월 23일 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서민숙 010-6770-3632



지난 1989년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후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리코더 연주, 청소년 리코더 합주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리코더 음악의 저변 확대에 힘써온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 2017년 정기연주회.

르네상스에서부터 바로크 시대까지 생활과 의식 안에 자유롭게 녹아 있었던 리코더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르네상스 음악부터 재즈 음악까지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음악감독/이창욱 ● 회장/서민숙
- 객원지휘/김희경이다은(부산예고 2학년)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정중혁 타악기 귀국독주회

일 시 10월 23일 월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문화 1600-1803



동의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에센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Deutsche Dirigenten Akademie 지휘과정을 수료한 타악기 연주자 정중혁 귀국 독주회.

Niederrheinische Sinfoniker 객원단원을 역임하기도 한 정중혁은 그동안 타악연주자 바베트 헤크와의 타악앙상을 연주, Philharmonie Sudwestfalen 단원과의 실내악연주, Bochumer Symphoniker 객원연주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바흐/무반주 첼로모음곡 제3번 중 프렐류드, 사라방드(마림바)
Georg Katzer/Schlagmusik(국내초연, Set up)
알렉세이 게라시메츠/Asventuras(Snare Drum)
Werner Tharichen/Konzert für Pauke und Orchester
작품 34(팀파니) 등
● 팀파니/김정우 ● 피아노/이주연

부산아시아콘서트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New York in Busan

일 시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부산아시아콘서트오케스트라 010-9538-6664



아시아 최고의 관악 오케스트라를 지향하며 관악을 사랑하는 젊은 예술가들로 창단한 부산아시아콘서트 오케스트라(Busan Asia Concert Orchestra, BACO)의 4번째 정기연주회.

상임지휘자 김기울이 지휘하고 호른리스트 부상현, 피아니스트 장서희의 협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New York in Busan'이라는 부제로, 관악오케스트라 곡 최고의 고난도로 연주자라면 누구나 꼭 한번 연주해보고 싶은 관악음악의 거장 요한 데 미어의 'The Big Apple'를 비롯해 평소 부산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관악 오케스트라의 화려하고 웅장한 곡을 만날 수 있다.

- 지휘/김기울 ● 해설/김윤선
- 호른/부상현 ● 피아노/장서희

한국가곡연구회 제22회 정기연주회
한·일 교류음악회

일 시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전석 만원
문의 우리아트 920-9545



우리의 정서가 담긴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연구,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한국가곡연구회의 22번째 정기연주회

일본에서 활동중인 한국가곡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하는 '한·일 교류음악회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만나다.

- 메조소프라노/손자경, 손혜은
- 테너/김동윤, 임성규
- 바리톤/양재원, 함도관, 심정보
- 반주/김현경

오충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29회 프롬나드 콘서트 '비상(飛上)'

일 시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상공회의소 홍보팀 990-7090~4



128년 역사의 부산상공회의소에 자리한 역사관 '부산 챔버스퀘어'에서 열리는 프롬나드 콘서트는 지역 경제인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오충근 예술감독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따뜻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고 있다.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의 협연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브리튼의 '심플심포니'를 비롯해 데오도라키스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등 가을의 서정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들려준다.

발달장애인 앙상을 '더날개' 정기연주회

일 시 10월 29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만원
문의 발달장애인 앙상 '더날개' 513-6655, 010-6695-1969

지난해 발달장애인(자폐, 지적장애)을 전문음악인으로 양성, 발달장애인의 문화 향유 활동을 통한 사회성 향상 및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의 목적으로 창단한 앙상 '더날개' 정기연주회.

음악감독으로 있는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를 비롯해 지휘자 손호상, 바이올리니스트 강지화, 박기령, 첼리스트 주민애, 플루티스트 김하나, 클라리네티스트 황남용, 피아니스트 김보은, 작곡가 정희영, 이상준이 함께하는 '더날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장애인 문화예술 발표 및 향유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이번 무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찾아가는 나눔 희망음악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단원들의 중주, 앙상을 연주뿐 아니라 초창연주자들의 다양한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카메라타첼머바이어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 71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성음악과 세속음악 III

일 시 10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천주교부산교구 가야성당

입장료 무료
문의 가톨릭센터 462-1870



지난 2010년 창단된 후 2014년부터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 음악을 중심으로 연주해온 카메라타첼머바이어가 마련하는 '세속음악과 종교음악' 세 번째 무대로, 탄생 450주년을 맞은 르네상스시대의 종말과 바로크의 시작을 일민 대작곡가 몬테베르디의 '아리안나의 탄가', '요정의 탄가' 등 세속음악과 '저녁기도(Vespers)' 등 종교음악을 들려준다.

- 지휘/권영옥 ● 피아노, 오르간/강지원
- 챔발로/김현애 ● 류트/고종대
- 오르간/최유정 ● 소프라노/강소영, 방효은
- 바리톤/조성빈 ● 테너/조동훈

제4회 해운대재즈페스티벌

일 시 10월 31일(화)~11월 4일(토)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J석 4만원, R석 3만5천원, S석 3만원
(10월 31일 공연은 무료)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문화기획단 무대공감 623-0678



아름다운 도시 해운대를 재즈로 물들일 해운대재즈페스티벌 2017년 무대. 신선하고 열정적인 신인밴드들의 향연 '제4회 부산 재즈루키밴드 컨테스트' 결선무대에 이어 이한철밴드, 이정식 콰텟, 전제덕 밴드와 일본의 SHIHO KQANAZAWA DUO가 나흘간의 특별한 재즈무대를 펼친다.

일정
10월 31일(화) 부산 재즈루키밴드 컨테스트 결선
11월 1일(수) 재즈 와인에 빠지다 105th '이한철 밴드'
11월 2일(목) 재즈 와인에 빠지다 106th '이정식 콰텟'
11월 3일(금) 재즈 와인에 빠지다 107th 'SHIHO KQANAZAWA DUO'(일본)
11월 4일(토) 재즈 와인에 빠지다 108th '전제덕 밴드'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시, 음악으로 말하다

일 시 10월 31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5천원(커피 제공)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5663



가슴 속 깊이 묻어놓았던, 설레고 그리워하는 모든 사랑의 감정을 음악으로 되살리는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10월 무대. 예술감독 김이곤의 친근한 해설과 함께 플루티스트 황예찬, 첼리스트 엄명환, 피아니스트 방기수의 연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설레는 사랑을 다루는 '봄의 테마'를 시작으로, 가요계의 시인 송창식의 선율과 감남조의 시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여름의 테마', 그리고 가을 향기 물씬 풍기는 곡 '얼굴'과 '가을편지'를 통해 쓸쓸한 사랑의 감정을 느껴보는 '가을의 테마'에 이어 '육십대 노부부의 이야기' 선율과 함께 이별의 아픔과 슬픔, 그리움을 들어보는 '겨울의 테마'까지 사랑의 계절을 따라 설레는 만남, 뜨거운 사랑, 서글픈 이별에 이르는 인생의 대서사시를 만날 수 있다.

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설레는 사랑을 다루는 '봄의 테마'를 시작으로, 가요계의 시인 송창식의 선율과 감남조의 시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여름의 테마', 그리고 가을 향기 물씬 풍기는 곡 '얼굴'과 '가을편지'를 통해 쓸쓸한 사랑의 감정을 느껴보는 '가을의 테마'에 이어 '육십대 노부부의 이야기' 선율과 함께 이별의 아픔과 슬픔, 그리움을 들어보는 '겨울의 테마'까지 사랑의 계절을 따라 설레는 만남, 뜨거운 사랑, 서글픈 이별에 이르는 인생의 대서사시를 만날 수 있다.

연극 '토닥 토닥 민원봉사실'

일 시 8월 25일(금)~10월 9일(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1만원, 주말 1만2천원)
문의 ㈜플레이더부산 1600-0316



유래, 상쾌, 통쾌한 휴먼 코미디 연극 '토닥 토닥 민원봉사실'. 사교몽치 불량경찰 최상연은 오늘도 뺑을 뜯기 위해 어김없이 거리를 헤맨다. 그녀의 타켓은 오로지 경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벌금을 빙자해 약간의 댓가를 요구

한 뒤 뺑을 뜯는 양아치 경찰 최성연을 사람들은 경찰이 아닌 뺑칠이라 부른다. 그러던 어느날 모르고 경찰청장 와이프로부터 뺑을 뜯다 걸린 최성연은 문책성 발령으로 달동네 민원실로 쫓겨가게 되고, 그렇게 토닥 토닥 민원봉사실로 오게 된 그녀는 그곳에서 온갖 희한한 민원들을 처리해나가기 시작하는데...

● 작, 연출/이만혁

국민연극 '라이어 그 후 20년'

일 시 9월 14일(목)~11월 12일(일)
화-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전석 3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디오르플레이터컴퍼니 664-7880



지난 1998년 초연 이후 20여년간 꾸준히 사랑받으며 국민연극의 칭호를 얻은 '라이어' 시리즈 2탄 '라이어 그 후 20년'. 택시 운전사 존 스미스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 여인, 메리와 바바라를 몰래 만나며 행복한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

메리와 사이에서 딸 비키를, 바바라와 사이에서 아들 케빈을 둔 그에게 어느날, 그의 딸과 아들인 비키와 케빈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되면서 존에게 절체 절명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20년 동안 두 가정에서 버젓이 남편과 아버지로 살아온 한 남자의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을 다룬 '라이어 그 후 20년'은 더욱 탄탄하게 다져진 이야기와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극의 재미를 더했다.

연극 '맞짱 연인'

일 시 9월 14일(목)~2018년 1월 1일(월)
평일 오후 5:00,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요일 오후 2:30, 5:00, 7:30(월요일 휴관, 10/4, 10/10, 10/17 5:00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전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연애의 환상을 확 깨는 걸쭉한 생활밀착형 사랑 이야기 '맞짱 연인'. 연애 5년, 동거 2년, 두근거림보다는 익숙함이 편한 10년째 개그지망생인 헬기왕성 스물아홉살 한심함과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우먼 서른여섯 노처녀 배신자, 주(酒)님과 만나기만 하면 막장인 배신자의 사라진 기억과 애매모호한 알리바이 때문에 한심한의 의심은 끝도 없이 커져만 가는데...

까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연애하면서 겪는 날 것 그대로의 동거라이프가 속 시원하게 펼쳐진다.
● 출연/오인환, 한혁, 정라영, 김수령, 허진, 손수경, 남호윤, 고영찬, 오승현, 김재호

제55회 부산예술제 秀秀한 연극 초청전

일 시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4:00, 7:00, 22일 일요일 오후 4:00, 25일~27일 수-금요일 오전 11:00, 오후 3:00(단체공연), 28일~29일 토요일 오후 4:00, 7: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사)부산광역시 연극협회 645-3759



봄에 개최되는 부산연극제와 더불어 가을을 대표하는 부산의 연극축제로 자리매김해온 제55회 부산예술제 秀秀한 연극 초청전.

극단 세진 '크림뺑을 먹고 싶었던 영희'
21일(토) 오후 4:00, 7:00, 22일(일) 오후 4:00
● 작/윤미현 ● 연출/김세진

극단 에저도 '검정고무신 2'
25일(수)~27일(금) 오전 11:00, 오후 3:00(단체공연), 28일(토)~29일(일) 오후 4:00, 7:00
● 작/김지연 ● 연출/최재민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창작 부조리극 '옥탑방 두 여자'

일 시 11월 2일(목)~25일(토) 목-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일-수요일, 11/10일 공연없음) 호로민락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5천원 (청소년, 5인 이상 관람시 20% 할인)
문의 극단 새벽 245-5919



임박해 오는 공연 날짜에 초초해 하며 극작에 여념이 없는 두 여자, 작품을 놓고 두 여자는 대화를 시작하지만 두 사람의 토론은 언어의 한계성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고 마침내 연극행위의 한계와 부딪힌다. 과연 두 여자는 무사히 대분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연극 '옥탑방 두 여자'는 마감일을 앞둔 두 사람의 피 말리는 극작 일지를 통해 '악육강식의 정글 같은 오늘, 이곳에서 연극이 무엇을 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진다.

● 작, 연출/이성민 ● 출연/유미희, 변현주

뮤지컬 '캣츠' 내한공연-부산

일 시 11월 3일(금)~1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8:00, 일요일 오후 2:00, 7: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젤리클럭, VIP석 15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문의 ㈜월드쇼마켓 1566-5490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뮤지컬'이라는 찬사를 받고있는 최고의 뮤지컬 '캣츠' 부산공연. '캣츠'는 지난 1981년 5월 영국 웨스트 엔드 초연 이후 전 세계 30개 국가에서 9천회 이상 공연되었으며 7천 3백만명이 넘는 관객들에게 큰 감

동을 선사했다. 아름다운 음악과 화려한 무대, 환상적인 안무로 전 세계를 매료시킨 뮤지컬 '캣츠'의 이번 내한공연은 새로운 관객층과 시대에 맞춰 새롭게 변화한 버전으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선보인다. 더욱 역동적이고 파워풀한 군무와 각 고양이 캐릭터별로 의상의 색감이나 패턴, 헤어스타일이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최고 역량을 갖춘 배우들로 더욱 고양이스러운 '캣츠'의 진수를 선사한다.

영화 | Movie

산복도로 옥상달빛극장 찾아가는 달빛극장

일 시 9월 29일(금), 10월 13일(금), 27일(금) 오후 7:00 중구 40계단 문화관광테마거리
입장료 무료
문의 (사)부산국제편영화제조직위원회 742-9600 모듬이극장 010-9290-5214



'산복도로 옥상달빛극장'의 투어 프로그램 중 하나로 관광명소이자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중구 40계단으로 관객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달빛극장'. 영화상영에 앞서 영화에 관한 상세한 해설과 함께 다양한 무대공연이 열리며, 관객이벤트, 예술시장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작은 영화축제의 장을 펼친다.

일정
9월 29일(금) 바닷마을 다이어리(2015년 작, 상영시간 128분)
10월 13일(금) 오즈의 마법사(1939년 작, 상영시간 112분)
10월 27일(금) 우리들(2016 작, 상영시간 94분)

부산예술회관 작은 영화상영회 시인과, 영화로 소통하다

일 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예술회관 회의실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예술회관 612-1372, 628-4371

전시부터 공연까지 다양한 예술문화를 만날 수 있는 부산예술회관이 영화를 보다 깊이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작은 영화상영회 '시인과, 영화로 소통하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마련되는 이번 상영회에서는 작품성과 예술성으로 인정받은 다양한 영화들을 감상하고 준비된 다과를 즐기며 영화에 대한 수다로 소통하는 '영화#수다'를 통해 영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일정
10월 28일(토) 화양연화(감독/왕가위, 2000년 작, 홍콩)
11월 25일(토) 내 어머니의 모든 것(감독/페드로 알모도바르, 2000년 작, 프랑스)
12월 30일(토) 연인(감독/장 자그 아노, 1992년 작, 프랑스)
● 진행/서영진부산영화인협회 회장

무용 | Dance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藝感: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한국무용단 비선 화백의 舞, 민화 속의 우리 춤

일 시 10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예술회관 612-1372

부산예술회관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마련한 상설무대. '문화가 있는 날'은 전국의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어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옹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매주 마지막 수요일로 지정,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10월 무대에서는 한국무용단 '비선'이 우리의 전통민화인 신윤복의 '해원전신첩' 중 57지에서 서사를 가져와 다양한 전통춤사위로 구성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 1장 단오풍정-축원장고무
- 2장 주유청강-한량무
- 3장 쌍검대무-교방검무
- 4장 미인도-교방살풀이
- 5장 무무도-무당춤

콘서트 | Concert

장윤정&조항조 콘서트

일 시 10월 7일 토요일 오후 3:00,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1만원, S석 9만9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한 최고의 한가위 선물로,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과 '트로트의 신사' 조항조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만날 수 있다.

행사 | Event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가슴을 울리는 바람의 소리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좋은 음악 & 좋은 만남'.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후 지난 3월 14일 600회를 맞은 '좋은음악&좋은만남'은 현재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에서 매주 음악이 사람들 속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고 만나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프로그램
10월(625회) 인간의 신호_호른의 세계
17일(626회) 강인함의 표상_트럼펫과 함께
24일(627회) 처음은 내가 책임진다_트럼본&튜바의 세계
31일(628회) 이달의 책읽기 (타자의 추방)(한병철 지음, 문학과 지성사)

김옥균의 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3:40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문화센터 부산본점 교양강의실
입장료 월 4만원
문의 김옥균 010-6367-0149



'MBC FM 목요일음악회'를 기획, 연출한 전 MBC PD 김옥균이 진행하는 클래식 영상해설감상회. 내 삶의 힐링을 위한 클래식음악과 만나는 자리로, 클래식음악을 영상과 함께 알기 쉬운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1강 차이코프스키 '피아노협주곡 제1번', 멘델스존 '바이올린협주곡 미단조'
2강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스프라노 안나 네트렙코 찰츠부르크공연)
3강 모스코바 붉은광장 콘서트(안나 네트렙코&바리톤 드미트리 호보로스토프스키)
4강 크로스오버 콘서트_켈틱우먼 'Musical Gems' Live In Concert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23강 러시아 5인조 2편

일 시 10월 10일 화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3



클래식음악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곽근수가 진행하는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서유럽 학자들이 '러시아 5인조'라 명명한 러시아의 작곡가그룹 '든든한 친구'의 작품세계에 대해 알아보는 '러시아 5인조' 두 번째 시간으로, 각자 독특한 이력과 개성을 지녔지만, '러시아 국민주의'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음악의 불모지였던 러시아에 새로운 음악지평을 활짝 열었던 '든든한 친구'의 작곡가 보로딘, 세자르 쿠키, 린스키코르사코프, 무소르스키, 발라키레프 중 린스키 코르사코프와 무소르스키의 생애와 작품을 소개한다.

문화도시네트워크와 함께하는 예술인문학 강좌 2탄 마임(MIME) 인문학 체험

일 시 10월 10일(화), 11일(수), 17일(화), 18일(수)
오후 7:00 서면 부산왕빠
입장료 무료
문의 (사)문화도시네트워크 760-1494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인 마임을 간단한 이해와 체험, 대화를 통해 알아가는 '마임 인문학 체험'. 2009 세계델픽대회 즉흥마임부문 동메달, 2016 부산연극제 연출상, 2017 부산연극제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극단 세진 대표이자 연출가, 배우, 마임이스트인 김세진의 강의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10일(화), 17일(화) 몸(The Body) 1_몸의 분절 : 머리, 목, 몸통, 다리, 팔과 손, 얼굴
11일(수), 18일(수) 환영(The Illusion) 1_마임의 동작과 대상 : 접촉, 힘과 무게

제55회 부산예술제

일 시 10월 19일(목)~29일(일)
부산예술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문의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31-1377, www.artpusan.or.kr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 문화를 선보이는 종합예술의 대향연 제55회 부산예술제.

주요일정
• 2017 부산예술제 개막식 및 부산음악협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20일(금) 오후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부산의 해외자매도시인 중국 칭다오의 성악가들과 부산음악협회 회원들이 함께하는 '가곡과 아리아의 밤'.
•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전 20일(금)~24일(화) 부산시민회관 1, 2층 전시실
• 국제건축도시디자인대전 20일(금)~23일(월)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 부산미술대작전, 해외자매도시 미술교류전 20일(금)~27일(월) 부산문화회관 대전전시실
• 부산차문화진흥원 '2017년 세계음다풍속'

20일(금)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부산꽃예술작가협회 '도시 꽃으로 물들다' 26일(목)~29일(일) 부산시민회관 1, 2층 전시실
• 제55회 부산예술제 '秀秀한 연극 초청전' 21일(토) 오후 4:00, 7:00, 22일(일) 오후 4:00, 25일(수)~27일(금) 오전 11:00, 오후 3:00(단체공연), 28일(토)~29일(일) 오후 4:00, 7: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봄에 개최되는 부산연극제와 더불어 가을을 대표하는 부산의 연극축제로 자리매김해온 제55회 부산예술제 '秀秀한 연극 초청전'. 올해 무대에서는 극단 세진의 창작극 '크림빵을 먹고 싶었던 영화'와 극단 에저도의 '검정고무신 2'이 관객과 만난다.
• 제55회 부산무용예술제 22일(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2017 제18회 실버가요제 22일(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제18회 2017 부산영상제 22일(일) 오전 11: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제4회 지역문학작품 교류전 25일(수)~29일(일)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 초청작가 강연 '나희덕 시인' 27일(금) 오후 5: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2017 부산예술제 폐막식 및 부산국악협회 '전통음악한마당' 28일(토) 오후 4: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무지카아트홀 성악아카데미 전상철 가곡교실

일 시 10월 16일(월)~11월 8일(수)
매주 월요일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무지카아트홀
입장료 수강료 6만원(교재비 포함)
문의 무지카아트홀 010-7191-2878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부산합창연합회 회장, 더뮤직콰이어, 더울림합창단 지휘자, 무지카아트홀 음악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전상철과 함께하는 가곡교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4차례 진행되는 이번 가곡교실에서는 한국가곡 및 세계유명가곡을 해설과 함께 배워볼 수 있다.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도덕·윤리 시낭송회

일 시 10월 24일 화요일 오후 6:30
양정 오상병원 강당
입장료 무료
문의 회장 안태봉 010-8374-0626

전 시 | Display

고은사진미술관 연례기획전 중간보고서 2017 정희승

일 시 8월 19일(토)~10월 18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Kiarostami's Snow Series 키아로스타미와의 눈 속으로의 산책

일 시 9월 8일(금)~10월 21일(토) 소울아트스페이스
문의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1997년 영화 '체리 향기로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1999년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로 베니스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 특별상을 받은 이란의 영화감독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의 사진전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10월 아카데미

일 시 10월 23일(월), 24일(화), 30일(월), 31일(화)
오후 7:30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입장료 일반 1만 5천원, 학생 1만원(음료 포함)
문의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010-3827-2005, 010-2774-3455



23일(월) 오후 7:30 근대 격동의 시간 탐험_광고로 보는 시대 읽기
● 강사/재경회(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24일(화) 오후 7:30 광근수의 클래식투어(15)_고전주의 시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합창의 세계'
● 강사/광근수(음악평론가)
30일(월) 오후 7:30 글로벌 시대의 우리음악
● 강사/서인화(국립부산국악원 원장)
31일(화) 오후 7:30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살로메, 카를로스 사우라 감독의 영화 '살로메'
● 강사/정천식(스페인문화연구원, 기타리스트)

미광화랑 특별기획 부산근대미술 24인전 2017 꽃피는 부산향5

일 시 9월 9일(토)~10월 10일(화) 미광화랑
문의 미광화랑 758-2247

중견작가 초대전 이경희 'IMAGE ACTE'展

일 시 9월 16일(토)~10월 26일(목)
예술지구_p ADP 1관
문의 예술지구_p 070-4322-3113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김성민의 예술기행 제7강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스

일 시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3

10월 강좌에서는 바로크시대 루벤스와 더불어 최고의 화가로 불리었던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허르먼손 판 레인(1606~1669)의 생애와 작품에 대해 알아본다. '빛과 어둠의 마술사'라 불리는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예술의 황금시대를 열었으며, 서양 미술사상 17세기의 가장 위대한 화가로 꼽힌다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색이 삶을 말하다 제7강 혼합된 감정의 색, 그리고 영원한 권력의 동반자 -보라색

일 시 10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3

'BUSAN-부산에 가면'展

일 시 9월 20일(수)~10월 22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최은정,원범식 2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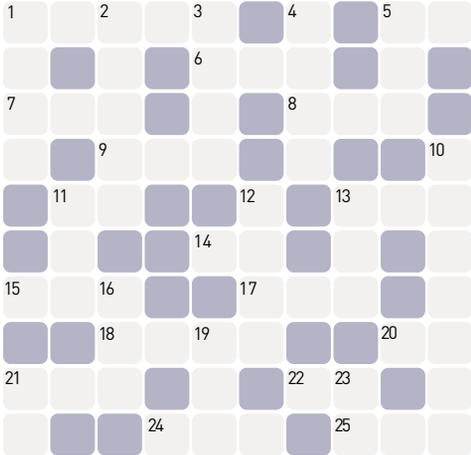
일 시 10월 10일(화)~11월 10일(금) 갤러리 아인
문의 갤러리 아인 747-2612

나강 서양화 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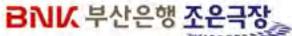
일 시 10월 10일(화)~10월 19일(목)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큰집 | 051-245-3320
 조은극장 | 1588-2757 옐로인 플라워 | 080-337-3370



가로열쇠

- ① 10월 14일 KBS교향악단과 함께 부산을 찾은 일본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 ⑤ 위도 48.5° 이상인 지역에서 여름 동안 밤에 밝아지는 현상.
- ⑥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 흉측하고 무시무시한 얼굴로, 보는 자를 돌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을 가졌다 고 전해지며 아테나 여신의 도움을 받은 영웅 페르세우스에 의해 목이 잘려 사망한다.
- ⑦ 가장 형편으로 인해 더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어서 예정보다 일찍 하는 제대. ○○○제대.
- ⑧ 조선시대에 인재양성을 위하여 서울에 설치한 국립대학격의 유학교육기관.
- ⑨ 세계 최초로 문자기록 및 도시형성이 시작된 4대 고대 문명 발생지 가운데 하나로, 오랫동안 메소포타미아로 알려져왔다. 수도는 바그다드
- ⑩ 농구, 배구 등 구기 종목에서, 지체 없이 재빠른 움직임으로 상대의 허점을 공격함.
- ⑬ 중국의 당현종이 양귀비를 지칭해 불렀던 말로, '말을 이해하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 기생, 예인을 일컫는다.
- ⑭ 고려 말기부터 발달하여 온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
- ⑮ 해운대구 장산에 출몰한다는, 목소리를 흉내 내 사람을 홀린다는 ○○○ 둘러싸고 한 가족에게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담은 허정 감독의 스릴러영화.
- ⑰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에 위치한 바위로, 마치 거북 한 마리가 납죽 엎드린 형상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선사시대 유적인 국보 제285호 암각화가 있어 오랜 역사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한다.
- ⑱ 원래 멧돌의 손잡이를 일컫는 말로, '~없다'라는 말이 붙으면서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는 듯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 ⑳ 선사에서 법당의 동북쪽에 달아놓은 큰 북. 아침, 저녁 예불 때와 법식을 거행할 때 이 북을 친다.
- ㉑ 17세기 파리를 배경으로 총사들의 우정과 모험을 그린 알렉상드르 뒤마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 ㉒ 숲이나 기와, 벽돌, 질그릇 등을 구워 내는 구멍이 모양의 시설.
- ㉓ 중국 명 대에 쓰인 장편 무협소설로, 복숭의 양산박에서 봉기하였던 호걸들의 실화를 배경으로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다지고 부패한 조정과 관료들에 저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㉔ 1959년 미국의 50번째 주(洲)가 된, 8개의 주요섬과 124개의 작은 섬들로 구성된 섬. 주도는 호놀룰루.

세로열쇠

- 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로 시작되는, 이원수 작가, 흥남파 작곡의 대표적인 동요로, 1923년경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다.
- ②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레 미제라블', '캣츠'와 더불어 '뮤지컬 Big 4'로 유명한 뮤지컬로, 푸치니의 '나비부인'처럼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여주인공 김의 비극적 사랑을 담고 있다.
- ③ 이미 발표된 작품을 다시 만드는 것.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지만 대체로 원작의 의도를 충실히 따른다. 이런 점에서 원작의 이름은 빌리지만 새로운 장르의 작품을 창조해 내는 패러디와 구분되며, 또 원작을 차용했다는 사실을 밝힌다는 점에서 표절과는 다르다.
- ④ 옛날에 있었던 일, 특히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하여 관용적인 뜻으로 굳어 쓰이는 글귀를 말하여 흔히 한자성어라고도 한다.
- ⑤ 미국 대통령의 관저.
- ⑩ 프랑스의 동화로, 1697년에 발간된 샤를 페로의 모음집 '어미 거위 이야기'의 판본인 '대장 고양이'가 가장 유명하다. 가난뱅이가 된 주인이 부자가 되도록 속임수를 써서 도움을 준 한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다.
- ⑪ 높이 1,058m. 한국의 8경 가운데 하나로 소금강산, 구봉산, 광명산 등으로도 불린다. 기암고봉, 울창한 수림, 깊고 수려한 계곡, 폭포 등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범주사를 비롯한 수많은 문화유적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1970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 ⑫ 스페인의 전설적인 인물 '돈 후안'을 묘사한 모차르트의 2막 오페라.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의 대본을 썼던 로렌초 다 폰테가 대본을 맡았으며, 1787년 10월 29일 프라하 극장에서 초연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 ⑬ 신라의 유명한 학자이자 문인인 최치원 선생이 낙향하여 절로 들어가는 길에 우연히 이 곳에 들렀는데, 주변의 경치가 너무도 아름다워 동백성 동쪽 벼랑의 넓은 바위 위에 ○○○라 음각으로 새긴 데에서 현재의 지명이 유래했다.
- ⑭ 금정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천연 고찰로, 신라 문무왕 18년(678년) 의상 대사에 의해 창건되었다.
- ⑮ 동아시아에서 구전되는, 황금빛 털에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
- ⑯ 강원도 동해안 최남단에 있는 시(市)로, 동쪽은 동해안 해안선과 북쪽은 동해시, 서쪽은 정선군과 태백시, 남쪽은 경상북도 울진군과 접하고 있다. 일찍부터 석탄광업이 시작되었고, 풍부한 석회암층과 철도 및 항만시설을 기반으로 시멘트 공업이 발달했다.
- ⑰ 오스트리아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른스트 마흐가 초음속 연구에서 도입한 개념으로, 유체 속에서 음속을 기준으로 물체의 속력을 결정하는 값이다. ○○ 1은 공기 중에서 음속인 시속 약 1,200킬로미터에 해당한다.

지난호 정답

1로	보	카	2폴	리	3천	지	창	4조
미			포	5하	지			성
오		6알	츠	루	7괴			진
와			8돈	키	9호	테		
10줄	탁	11동	시			두	12발	레
리	해	13여	14까	투	리			
옛	15안	네	의	일	기	16우	도	
		절	도		인		드	
17나	막	신			18형	19수	20발	
치	21곳	거	리			22도	메	인

9월호 퍼즐 당첨자

옐로인플라워	김은경(수영구 수영로), 배수현(서구 망양로)
큰집 식사권	곽규택(북구 화명신도시로), 김동환(수영구 광안해변로), 김황연(사하구 사하로), 문정임(남구 황영대로), 장서원(남구 유엔평화로)
조은극장	고수진(동구 중앙대로), 김민성(동래구 쇠미로), 김상기(부산진구 진남로), 윤인영(해운대구 반여로), 홍수연(중구 망양로)
공간소극장	김영호(동래구 우장춘로), 김하나(남구 유엔로), 윤재현(해운대구 마린시티로), 이경선(서구 보수대로), 정주영(동래구 금강로)

RECORD

GM뮤직 제공



요нас 카우프만 'L'Opera'

▶ 첫 프랑스 오페라 아리아 모음집으로 돌아오다!

방대한 레퍼토리와 과감한 시도, 수려한 외모까지 21세기를 대표하는 스타 테너 요нас 카우프만(Jonas Kaufmann)이 비제 '카르멘', 구노 '로미오와 줄리엣', 오펜바흐 '호프만 이야기' 등 주요 프랑스 오페라의 유명 아리아가 수록된 오페라 아리아 모음집을 출반했다. 독일 뮌헨에서 태어난 요нас 카우프만은 오늘날, 세계 각지의 유명 오페라 극장에서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고 있고 그가 나오는 공연은 항상 매진행렬이다. 내놓는 음반 역시 항상 클래식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고 수많은 상을 휩쓴다. 이제는 취향의 차이일 뿐 카우프만의 이름 앞에 세계 최고의 스타 테너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에 새로 발매된 'L'Opera'는 레퍼토리 확장에 대한 그의 끝없는 노력과 열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앨범이다. 'L'Opera'라는 프랑스어 제목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이 앨범의 모든 트랙을 프랑스 태생, 혹은 독일 태생이지만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작곡가들의 오페라 아리아로만 채웠다.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프랑스적 색채와 카우프만이 뿜어내는 어두우면서도 풍부한 성의 조화가 예상 외로 절묘하게 균형을 잡고 있어 매력적인 음반이다.



해금연주자 신날새 정규앨범 '시간을 달리다'

▶ 신날새 특유의 단아함과 신선한 강렬함을 선사하는 앨범

고운 소리의 해금 연주자로 평명이 나있는 젊은 해금연주자 신날새는 해금의 서정적이고 감성을 자극하는 기본의 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여백의 미에 서양 음악의 부드러움과 익숙함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자신만의 해금 소리로 표현해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연주가이다. 이번 앨범에서는 신날새 고유의 부드러운 해금 소리는 물론 신선하고 강렬한 해금의 공명을 선사해주는 새로운 곡들을 유명 작곡가들과 함께 작업하여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앨범을 통해 마이클 호페 최고의 히트곡 'Beloved', 오지 오스본의 명곡 'Goodbye To Romance', 영화 '봄날은 간다'의 테마곡 'One Fine Spring Day', 가슴을 적시는 이련한 멜로디의 백설희 '봄날은 간다' 등이 신날새의 해금으로 새롭게 재탄생했다. 뿐만 아니라 작곡가 박경훈의 신곡 '시간을 달리다', 피아니스트 전수연의 신곡 '너를 처음 본 그해 봄날', 그리고 이 앨범을 프로듀스한 싱어송라이터 최성무의 신곡 'Tripple Groove', '해금의 여행', '달빛 아래 뱃노래'와 신날새 본인의 자작곡 '당신을 향해 피는 꽃'이 수록되어 있다.



신현필 'Falling into the Abyss'

▶ 일상에서 발견한 음악의 본질, 심연으로의 여정

버클리 출신 작곡가 겸 색소폰리스트 신현필이 현악 콰르텟과 함께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사운드를 선보인다. 신현필이 클래식 콰르텟 필스트링과 함께 완성한 새 앨범 '폴링 인투 더 어비스'(Falling into the Abyss)는 그동안 우리 대중음악에서 듣기 어려웠던 새로운 사운드 실험과 작가주의적 시도로 완성된 앨범이다. 총 9개의 트랙으로 구성된 이번 앨범은 색소폰과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등 악기의 소리가 가진 고유의 색깔과 명확하고 선명한 테마의 제시를 통해 리스너들이 곧바로 음악과 동화될 수 있도록 작업했다. 신현필은 이번 앨범의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필드 레코딩 방식으로 앨범 전체 녹음을 진행했다. 각 악기별로 녹음 후 시퀀싱 작업을 통해 하나의 곡을 만드는 일반적인 레코딩에서 벗어나 모든 악기를 한 번에 녹음함으로써 감정의 동시성과 순간성을 앨범에 담아냈다. 이번 음반은 낯선 음악적 경험을 통한 심연으로의 여정에 리스너들을 초대한다. 지금까지와 다른 시도와 다른 방향, 다른 목적으로 예술의 본질과 음악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는 것은 덤이다.



박현주 · 북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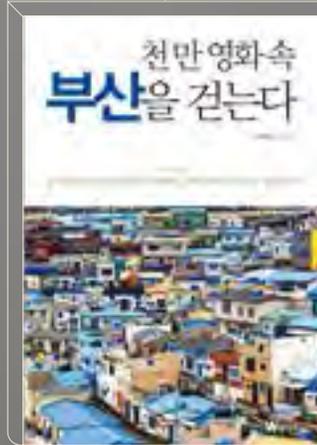
BOOK



CEO 금난새

금난새 지음 / 한국경제신문사 / 236p / 1만 5천원

한국 클래식 대중화의 선구자, 우리 시대의 클래식 거장. 금난새 지휘자를 일컫는 수식어이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스스로를 지휘자 대신 'CEO'라 칭해왔다. 그는 1998년 우리나라 최초로 벤처 오케스트라를 창단했고, 이 시도는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혁신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 관객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롭고 신선한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성공적으로 이끈 그는 그가 예술과 경영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동안 음악에 관한 책들을 펴냈는데, 이 책은 상상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기획으로 무장한 CEO가 들려주는 경영 이야기를 담았다. '신나게 즐기라; 즐겁고 신나게 뛰어드는 사람이 조직을 살린다', '미움껏 상상하라; 리더의 상상력의 크기에 따라 조직이 바뀐다', '과감하게 도전하라; 조직에 필요한 사람은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다', '먼저 소통하라; 구성원들이 조직에 애정을 갖도록 존중하라', '자유롭게 융합하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고립형 천재가 아니라 융합형 인재다', '스토리를 만들라; 리더는 늘 새로운 상상력과 아이디어, 꿈과 스토리에 굶주려 있어야 한다', '아낌없이 나누라; 소유의 기쁨보다 나눔의 행복에 집중하라'. 예술과 경영이 만나는 접점이다.



천만 영화 속 부산을 걷는다

강태호 지음 / W미디어 / 296p / 1만 5천원

“아버지 뭐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하시노?” “마이무따 아이가, 고미해라” 영화 <친구>의 대사이다. 부산고등학교와 국제호텔 앞에서 촬영한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이다. 영화에서 만나는 부산은 익숙하고 반갑다. 스크린에서 보면 더 근사해 보이기도 한다. 부산을 무대로 한 관객 천만 영화 <변호인> <친구> <도둑들> <국제시장> <해운대>의 촬영지를 통해 부산의 매력을 알리는 책이 나왔다. 저자는 제10회 해양문화상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작가이다. 부산진구 관광 서포터즈와 부산인권사무소 등 부산 소재 공공기관의 SNS 기자단에 참여해 부산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5개 영화의 촬영지를 지갑지관, 용두산관, 산복도로관, 범일동관, 해운대관의 5개 카테고리 나뉘어 소개했다. 200여 장의 컬러 사진과 함께, 각각의 위치와 이동거리가 들어간 펼침 지도와 '이동로 지도'까지 곁들였다. 저자의 상세하고 친절한 안내 덕분에 부산을 처음 찾는 사람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 촬영지를 건다보면 영화 속 장면도 떠오르고, 부산의 역사와 매력이 느낄 수 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풍경을 돌아보는 것도 특별한 여행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유럽의 작은 미술관

최상운 지음 / 을유문화사 / 348p / 1만 6천원

미술 여행 작가 최상운 씨가 유럽의 8개 나라, 11개 도시를 여행하며 찾은 작은 미술관을 소개한다. 유럽 여행에서 미술관 방문은 매력적인 코스이다. 그러나 유명 미술관에서 많은 관광객에 떠밀리며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주마간산 식으로 둘러보기만 해야 하는 대형 미술관에 지칠 수도 있다. 차분하게 작품을 감상하고 싶거나, 하나의 테마에 꼭 빠져보고 싶거나, 좋아하는 화가의 그림만을 집중적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런 독자들을 위해 저자가 유럽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직접 방문한, 작지만 알차고 보석 같은 미술관을 알려준다. 작은 미술관이라고 해서 소장한 작품들이 기대에 못 미친다거나 미술관 규모 자체가 작은 것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작은 미술관 마우리츠호이스에 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피난을 다녀야 했던 피카소의 그림 수백 점은 독일 베르그루엔 미술관에서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 레오폴트 미술관에서는 클림트와 에곤 실레를 만날 수 있다. 유명하지는 않지만 개성 있고 알찬 미술관만을 골라서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보석 같은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2017년도 4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개강

차별화된 강좌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2017년도 4분기 강좌가 10월 10일부터 새롭게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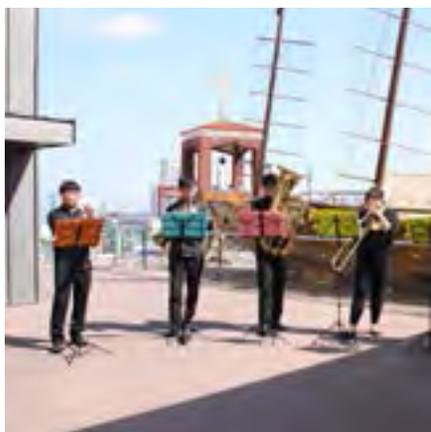
특히 이번 강좌에서는 기존 강좌 이외에도 각박한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특별한 강좌가 준비되어 있다. '아티스트 웨이(The Artist's Way)'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번 특별 강좌는 지난 3분기 단기

특강으로 많은 수강생들의 호응을 얻었던 '소설가와 함께하는 나만의 글쓰기'와 꿈틀대는 인체 혹은 얼굴 드로잉으로 인간의 억압된 욕망을 표현하는 작품 세계로 유명한 김은주 작가의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강좌가 새롭게 추가, 편성됐다.

매 분기 열혈 수강생들을 늘려가고 있는 'Artistic Fantastic 미술사'와 '유혁준의 음악이야기'는 이번 4분기에도 그 수강 열기가 뜨거울 예정이다. 미술비평가이자 활동하고 있는 강사 장원의 'Artistic Fantastic 미술사'에서는 국내외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작가를 살펴봄으로써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을 가지며 '유혁준의 음악이야기'에서는 지난 3분기 '모차르트의 음악세계'에 이어 '베르디의 음악세계'로 수강생들을 안내한다. 이밖에 사진작가 뿌리야 김이 진행하는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에서는 TV, 영화, 광고 등을 통해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또는 '무엇을 더 잘 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면서 '보는 안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테일을 배워볼 수 있다.

11월 9일부터는 매주 목요일 총 3회에 걸쳐 여행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이상훈의 '세계의 공연장'이 단기 특강으로 진행된다. 이번 강좌에서는 드림원정대의 대표로 지난 9년간 건축, 음악, 미술, 무용 등 동시대의 예술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보고 느꼈던 감동을, 그가 축적한 전 세계 수백 개의 공연장을 방문한 자료들과 함께 전해준다. 이밖에도 수준 높은 실력을 갖춘 부산시립예술단 단원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바이올린, 가야금, 클라리넷, 클래식기타 등 악기수업과 태평무, 입춤, 소고춤 등 한국무용 강좌도 변함 없이 마련된다. 수강신청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및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강의 커리큘럼 및 강사 프로필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전시교육팀(607-6061~3, www.bscc.or.kr)



10월 찾아가는 예술단

부산문화회관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지역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시민들과 만나는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이 10월,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그동안 다양한 주제의 찾아가는 공연으로 시민과 만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부산시립예술단은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찾아가 수준높은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문화를 통한 소통과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10월에는 9일 한글날을 맞아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무용단의 '한글날 기념식 공연'을 시작으로 화명수목원, 부산119안전체험관, 명장정수사업소, 부산역광장, 부산시민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일정

- 9일(월) 오전 10:00 부산광역시청 대강당 _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한글날 기념식 공연'
- 14일(토) 오후 5:00 화명수목원 _교향악단
- 18일(수) 오후 2:00 부산119안전체험관 _소년소녀합창단
- 19일(목) 오후 6:30 명장정수사업소 _교향악단
- 20일(금) 오후 5:40 부산역광장 특설무대 _무용단 '동추 차이나타운 축제 개막공연'
- 21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공원 야외무대 _국악관현악단 '부산진구청 북 페스티벌 축하'

BUSAN CULTURE CENTER

2018년 상반기

부산문화회관 정기대관 안내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극장(대관담당) : 051-607-6058

전시실(대관담당) : 051-607-6061

■ 대상

- 극장(대/중/챔버홀), 대전시실
- ※ 소극장(어린이전용극장)은 연간 기획공연 진행에 따라 대관 불가

■ 대관내용

- 대관기간 : 2018. 1. 1. ~ 2018. 6.30. (6개월)
- 대관 가능일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참조
- 접수기간 : 2017.10. 2.(월) 09:00 ~ 10.16.(월) 18:00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전화 및 구두신청은 받지 않음)
극장 hssi12@bscc.or.kr/전시실 kazuya07@bscc.or.kr
- 결과통보 : 11월 중
※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승인 및 불허 통보

■ 대관심의 우선기준

- 순수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우선 대관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진행
-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의 공연 및 행사는 대관 제외

■ 대관신청 및 승인절차

- 신청 및 접수 > 대관심의 > 심의회 결과 통보

■ 대관신청 시 구비서류

- 사용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공연상세내용, 공연참고자료) 1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혹은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공연계획서가 없는 신청서는 접수할 수 없으며, 공연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심의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납부

- 계약금(대관료의 30%) : 시설사용 승인 후 30일 이내 납부 및 계약 체결
- 잔금 : 공연 예정일 60일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70% 납부
※ 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관 승인이 취소되며, 향후 대관신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별도 부과



2018년 상반기

부산시민회관 정기대관 안내

• 대상

- 극장(대/소), 전시실(제1전시실, 제2전시실)

• 대관내용

- 대관기간 : 2018. 1. 1 ~ 2018. 6. 30.(6개월)

- 대관가능일 :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홈페이지(www.bscc.or.kr) 참조

- 접수기간 : 2017. 10. 2.(월) 09:00 ~ 2018. 10. 16.(월) 18:00

- 접수방법 : 전자우편(mayday@bscc.or.kr) 접수(전화 및 구두신청은 받지 않음)

- 결과통보 : 11월 중

※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승인 및 불허 통보

• 대관제한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고,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연관련 사용료 등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

- 초·중·고등학생의(예술학교 제외) 학예 발표성 공연 및 행사

- 정치, 종교, 친목 등 일반 집회성 공연 및 행사와 상업성이 있는 특정 물품선전과
기업 보고회 등

- 대관 제한을 받고 아직 그 기한이 완료되지 않은 공연단체 또는 공연인

• 대관신청 및 승인 절차

- 신청 및 접수 ▶ 대관심의 ▶ 결정사항 통보

• 대관신청 시 구비서류

- 사용허가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프로그램, 프로필 등 첨부) 1부 또는
행사(전시)계획서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 인터넷 주소창(www.bscc.or.kr) ▶ 대관안내 ▶ 대관신청서

• 사용료 납부

- 계약금(기본시설 사용료의 10%) : 사용허가 후 30일 이내 납부 후 계약체결

- 잔 금 : 대관개시일 30일전까지 납부

※ 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자 측의 사정에 의한
대관 취소 시 납입된 사용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의 10%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부가세 별도 부과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문화사업팀 T. 630-5231-2

2017년도 4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수강신청 | 9.18 (일)부터 신청순 마감
www.bscc.or.kr(아카데미) > 강좌안내 및 접수 > 4분기

인문학

▲ 신규강좌

강좌명	기간	횟수	시간	장소	정원	수강료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10.16 ~ 12.18 (**월)	10	14:00 ~ 15:30	컨퍼런스홀	15	150,000원
수업기와 함께하는 나만의 글쓰기	10.10 ~ 12.12 (**화)	10	10:00 ~ 12:00	컨퍼런스홀	30	120,000원
세계의 공연장	11. 9 / 16 / 23 (**목)	3	14:00 ~ 16:00	컨퍼런스홀	50	40,000원
유혁준의 음악이야기	10.10 ~ 12.12 (**화)	10	14:00 ~ 16:00	컨퍼런스홀	50	180,000원
생미 컬러티를 위한 사진학	10.14 ~ 12.16 (**토)	10	10:30 ~ 12:30	컨퍼런스홀	20	120,000원
Artistic Fantastic 미술사	10.14 ~ 12.16 (**토)	10	14:00 ~ 16:00	컨퍼런스홀	30	120,000원

실기

강좌명	기간	횟수	시간	장소	정원	수강료	
한국춤	태평무	10.16 ~ 12.18 (**월)	10	19:00 ~ 20:30	무용단연습실	25	100,000원
	입춤	10.10 ~ 12.12 (**화)	10	19:00 ~ 20:30	무용단연습실	25	100,000원
	소고춤	10.11 ~ 12.13 (**수)	10	19:00 ~ 20:30	무용단연습실	25	100,000원
사물놀이	10.10 ~ 12.26 (**화)	10	19:00 ~ 20:30	국악관현악단 연습실	12	120,000원	
바이올린	A	10.16 ~ 12.18 (**월)	10	17:30 ~ 19:00	컨퍼런스홀	12	120,000원
	B		10	19:30 ~ 21:00	컨퍼런스홀	12	120,000원
가야금	중급	10.10 ~ 12.26 (**화)	10	17:30 ~ 19:00	컨퍼런스홀	12	140,000원
	초급		10	19:30 ~ 21:00	컨퍼런스홀	12	140,000원
클라리넷	A	10.11 ~ 12.20 (**수)	10	17:30 ~ 19:00	컨퍼런스홀	8	120,000원
	B		10	19:30 ~ 21:00	컨퍼런스홀	8	120,000원
해금	초급	10.12 ~ 12.14 (**목)	10	17:30 ~ 19:00	컨퍼런스홀	12	120,000원
	중급		10	19:30 ~ 21:00	컨퍼런스홀	12	120,000원
클래식 기타	중급	10.13 ~ 12.15 (**금)	10	14:00 ~ 15:30	컨퍼런스홀	15	120,000원
	초급		10	16:00 ~ 17:30	컨퍼런스홀	15	120,000원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정기회원 가입안내



VIP

- 연회비** 10만원
초대권 8매(기획공연 4매, 예술단공연 4매)
할인대상 6매(공연당)
특별혜택 지정된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각 4매 증정
-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택순 예약
 -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에서 예약가능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50%)
 -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 | 무료주차권 10매



SPECIAL

- 연회비** 5만원
초대권 4매(예술단공연 4매)
할인대상 4매(공연당)
특별혜택 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증정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 무료주차권 6매



MEMBER

교향악단 · 청소년교향악단 | 국악관현악단 | 합창단 · 소년소녀합창단 | 무용단 | 국단

- 연회비** 3만원
초대권 2매(예술단공연 2매)
할인대상 2매(공연당)
특별혜택 예술단공연(5개 단체) 가입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증정 및 비가입단체는 예술단공연입장료 할인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문의 :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TEL. 051-607-6075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제외) www.bscc.or.kr

공통혜택

- 가입리전(무료)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어의 초대' 매월 우송
- 공연정보(SMS) 서비스 제공
- 예매예기 수감료 할인(10~20%)
- 부산시대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순회수 협의에 한함)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무료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용리당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매월 1회, 주점)
- 제휴업체 할인 등
- ※ 단체가입할인 :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제2회 아시아 민족음악의 밤

국악관현악 [대지 II] / 국악관현악 [비손] / 단소협주곡 [초소의 봄] / 바이올린 협주곡 [Zigeunerweisen]
양금협주곡 [바람의 노래] / 25현 가야금협주곡 [절영의 전설]



감독
이정근
(국악관현악단, 우악서단장)



소리
박성희



리코더
권호진



바이올린
이현우



양금
윤은화



비파
조양
CAO YANG

2017. 10. 24(화) 오후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입장료 | 균일 10,000원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051-607-3124

THREE
PORTS
TIME

삼포를 통해 미래를 꿈꾸는 전쟁대하소설,

삼포시대

일본의 국가체제를 정립한 쇼토쿠 태자는
백제 무령왕이 일본에서 씨 뿌린 사생아,
일찍이 한국의 우수한 문명은
포구를 통해 일본에 문화의 꽃을 피웠다

오늘날까지 이어져오는 한일관계의 비밀을
역사의 문풍지 틈새로 살짝 엿본다



총 8권 · 지은이 문성근

현재 1~5권 발행
6~8권 - 12월 말 발행 예정
구입문의 | 효민디앤피(051-807-5100) · 전국유명서점



TRISHA

WEDDING JEWELRY

KOREA *Sale* FESTA
10월 100일간

60~30% OFF

2017. 9. 28 (목) - 10. 31 (화)

*본 행사 기간



본점 051) 631-6688

선릉점 051) 747-9006

2017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II

비엔나 챔버 플레이어즈

2017 Great Chamber Series II
Vienna Chamber Players



2017. 10.27. 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바이올린 | 유희승, 데야나 골로체박 비올라 | 페터 사가이엡
첼로 | 마이클 윌리엄스 클라리넷 | 헬무트 회들
바순 | 비앙카 슈스터

입장료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2017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III

일본 텔레만 실내악단

2017 Great Chamber Series III
Telemann Institute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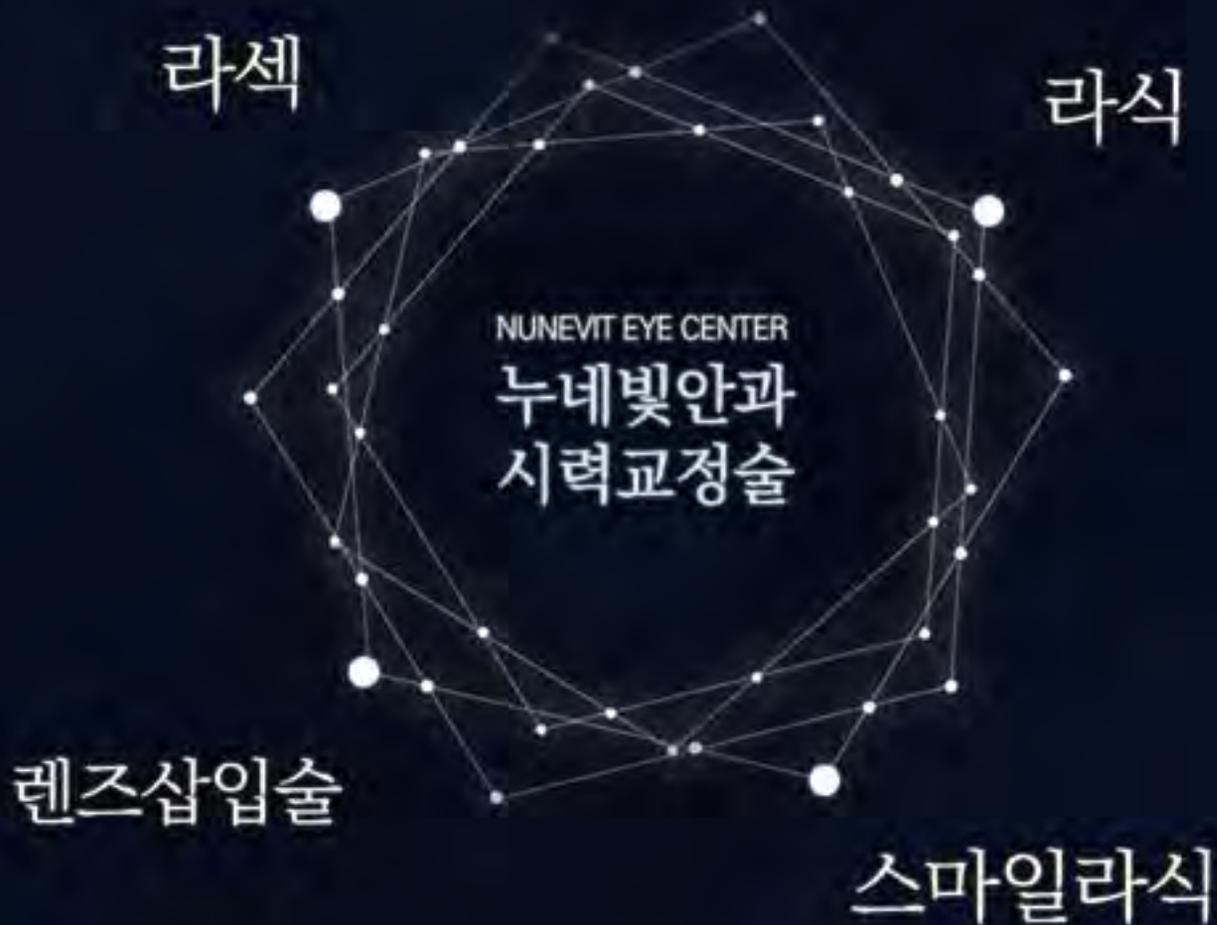


2017. 11.1. 수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및 예술감독 | 타케하루 노부하라
협연 | 바이올리니스트 이예별
일본 텔레만 실내악단

입장료 | R석 4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시력교정술 고민하시고 계시나요?



누네빛안과는 라식, 라섹, 스마일라식, 렌즈삽입술 등 한가지 수술에
치우치지 않고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시력교정술을 권해드립니다.

✻ 누네빛안과

롯데호텔 14F | 051.810.5678 | www.nunevit.com

KBS SYMPHONY ORCHESTRA



바이올린
미도리
Timothy Greenfield-Sanders



지휘 요엘 레비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

헌데미트

본 배비 주제에 의한 교향적 변용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작품 47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 작품 40



2017. 10. 14(토) 오후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